

지능적  
필요한  
수능서

# 정답과 해설

국어 영역

국어

# I 운문 문학

## 화자

### 개념 적용하기

본문 013쪽

1 ○ 2 무상감 3 종교 4 식민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망국민으로 살고 있다. 5 부끄러운 고백 6 ③

#### 제망매가 \_월명사

해제: 이 시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지은 10구체 향가로, 혈육의 죽음을 감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여 비유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시는 향가 가운데서도 특히 뛰어난 문학과 고도의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특징: 정제된 10구체 향가로 비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구성

1~4구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혈육의 정)
5~8구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9~10구	슬픔의 종교적 승화

#### 한눈에 보기



#### 참회록 \_윤동주

해제: 이 시는 '부끄러운 시인'이라 불리는 윤동주의 시적 경향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화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망국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욕되다'라고 인식하여 참회록을 쓰며 반성을 하고, 치열한 자아성찰의 의지를 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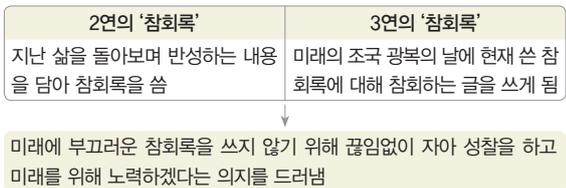
주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아 성찰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가 나타남  
·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 자아의 모습을 반성함

구성

1연	망국의 역사 속의 욕된 자아의식
2연	무의미하게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현재의 참회
3연	현재의 참회에 대한 미래의 참회
4연	암담한 현실과 치열한 자아 성찰
5연	어두운 역사적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슬픈 자화상

#### 한눈에 보기



1 화자는 한 가지에서 난 앞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여, 누이의 요절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를 통해 화자가 혈육인 누이의 죽음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화자는 누이의 죽음 때문에 괴로움과 무상감을 느끼다가, 시상이 마무리되는 9~10구에서 종교에 의지하여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

4 1연의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과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 에 / 이다지도 욕될까.'라는 시구에서 화자는 일제의 식민지인 조국의 현실과 망국민의 무기력한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3연에서 미래에 하게 될, 현재 삶에 대한 참회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바로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무기력한 화자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과 괴로움이다.

6 4연에서 화자는 밤마다 '나의 거울'을 닦자고 한다. 이는 2연과 3연의 욕된 자아를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유형 적용하기

본문 016~017쪽

1 ④ 2 ④

####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매화나무 2 겨우 소한을 넘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 매화나무와 교감하고 있다. 3 외로운, 따뜻한 4 화자는 시련이 몰아닥칠 때마다 매화나무의 '어린 꽃봉들'과 교감하며 그들로부터 자기 내면의 고독을 위로받는다.

#### 매화나무 \_유치환

해제: 이 시는 화자와 시적 대상인 매화나무와의 교감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한겨울 추위 속 온기를 매화나무와 공유하고 있다고 여기고, 지금 자신이 느끼는 정서 역시 매화나무로부터 환기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교감을 통해 화자는 매화나무로부터 자기 내면의 고독을 위로받고 치유하려 한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혹독한 추위는 일제 강점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매화'는 관습적 상징으로서 '지조'와 '절개'를 뜻하면서 머잖아 봄은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매화나무가 시련을 이겨 내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어린 꽃을 피울 때, 화자 자신도 기꺼이 매화나무처럼 혹독한 시련을 이겨 내고 봄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제: 매화나무와의 교감을 통해 깨달음과 위안을 얻음

특징: 매화나무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여 드러냄  
구성

1연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있는 매화나무의 모습
2연	추위 속에 화자가 느낀 따뜻함을 같이 느꼈을 매화나무
3연	매화나무에게서 의지적인 태도를 배운 화자
4연	매화나무가 화자에게 주는 위안

한눈에 보기

<b>매화나무</b>	<b>화자</b>
한겨울을 이겨 내고 있음	내면의 고독으로 힘들어함
무엇인지 따뜻한 온기를 느낌	드넓은 바다를 보고 오고 싶음 (매화나무를 통해 환기된 마음)
지금은 서로 위로하고 감싸며 이겨울을 버텨야 함	매화나무와 교감하여 위안을 받고 시련을 버티고자 함
↓그러면	↓머잖아
활짝 꽃을 피울 때가 올 것임	외로움을 떨칠 때가 올 것임

1 자료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보기〉에 따르면, ‘매화나무’는 화자와 교감하는 시적 대상이다. 또한 ‘어린 꽃봉들을 머금은 가녀린 가지’가 스스로에게 또는 화자에게 ‘매운 바람결’에 다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므로, ‘바람’은 ‘꽃봉’을 위로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련을 주는 존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한겨울 추위를 느끼고 있다고 했고, ‘한천 아래 까무러치듯이’ ‘얼어붙던’에서 화자가 느끼는 한겨울 추위를 짐작할 수 있다.
- ②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매화나무와 온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이런하고도 따뜻이 마음 뜰 돌던 느낌’을 ‘느껴 왔는지 모르다’는 것에서 화자가 매화나무와 온기를 공유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현재 자신이 느끼는 정서가 매화나무로부터 환기된 것이라 여기고 있고, ‘저 가지들을’ 보고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에서 화자의 정서가 매화나무로부터 환기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매화나무와 교감하고 있다고 느끼며 이를 통해 내면의 고독을 위로받는다. 그리고 ‘가녀린 가지’가 ‘외로움에 다쳐서 안 된다’고 ‘타일르듯’ 흔들거리는 것에서 화자와 매화나무의 교감을 엿볼 수 있다.

2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비교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윗글의 화자는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있는 ‘매화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매화나무와 교감하며 자기 내면의 고독을 위로받고 있다. 〈보기〉에서도 화자는 여행하며 보게 된 나무들의 모습에서 내면적 자아를 인식하고, 서울로 돌아와 자신의 내면에도 나무와 같은 고독이 깔려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나무’라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그 대상의 정서에 공감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윗글의 화자는 ‘뜰’에 있는 ‘매화나무’와 동질성을 느끼고, 〈보기〉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에게서 동질성을 느끼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자아의 근원적 탐색을 위한 화자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윗글의 화자는 ‘나무’와 교감하며 위안을 받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나무’를 통해 발견한 자신의 내면적 고독감을 확인하고 있다. 두 시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고독을 확인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알아 두기

나무 \_박목월

- **해제:** 이 시는 유성에서 서울까지의 여정 속에서 화자가 목격한 나무들의 다양한 인상을 통해 인간 삶의 근원적 고독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여행 중에 나무에게서 수도승, 객, 파수병의 이미지를 보고, 묵중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화자는 이러한 나무들의 모습이 곧 자신의 내면적 속성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내부로 돌림으로써 화자는 자신의 삶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화자는 나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이 고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 **주제:** 나무를 통한 내면의 성찰

시어

개념 적용하기

본문 019쪽

- 1 대조적 2 ○ 3 물(물), 바회(바위), 솔(소나무) 4 ③  
5 ⑤ 6 청각적 이미지, 어린 시절 풀피리를 볼 때의 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우가 \_윤선도

해제: 이 시는 작가가 해남 금쇄동에 은거할 무렵인 56세 때 지은 시가로 수(水), 석(石), 송(松), 죽(竹), 월(月) 다섯 가지 자연물을 벗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담은 연시조이다. 다섯 가지 자연물에 내재한 정신적 가치를 예찬하면서, 이러한 덕성을 인간이 본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주제: 변하지 않는 다섯 벗을 예찬함

특징 · 다른 대상과 대조하여 그 속성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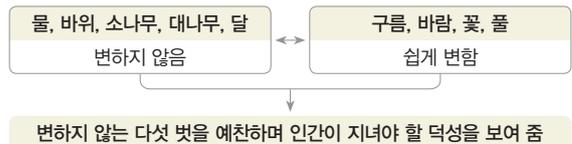
- 자연물의 속성에서 본받아야 할 덕목을 이끌어 냄

구성

제1수	다섯 벗을 소개함
제2수	물의 영원성 예찬
제3수	바위의 불변성 예찬
제4수	소나무의 절개 예찬
제5수	대나무의 절개 예찬
제6수	달의 광명과 과묵함 예찬

수록

한눈에 보기



고향 \_정지용

해제: 이 시는 그리던 고향에 돌아와 예전과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을 확인하고도 그것에 위안을 얻지 못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향의 외적인



# 1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하나씩의 별’)는 화물열차 지붕 위에 드러누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랑민들이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이자 소망을 의미한다. ㉡(‘갈구렁달’)는 ‘너털대는 지붕 위에’ 걸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연민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우리’가 그나마 품고 있는 작은 희망이지만, ㉡는 ‘우리’의 고달픈 삶 자체를 의미한다.

③ ㉠은 고향을 떠나 힘겹게 살아온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오며 품은 희망을 의미하고, ㉡는 ‘우리’가 처한 피폐해진 현실을 의미한다.

④, ⑤ ㉠과 ㉡ 모두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 2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나)에서 ‘우리들’은 시골에서도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산업화로 도시에서 내몰려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화자의 모습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 남도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한다. 또한 (나)에서 ‘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 / 별판에 버려진 사람들’을 ‘우리들’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라는 시어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동질감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는 과거 고국을 떠나며 본 창밖 풍경이자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며 본 창밖 풍경을 의미한다.

③ (가)에서 화자는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온 ‘할벗은 나’로, ‘함경도 사내’이지만 황폐화된 현실로 인해 귀속을 실현하지 못하고 고향이 아닌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⑤ (나)에서 ‘저녁놀을 바라볼 시간’이나 ‘갈껌질치며 고추잠자리 잡을 시간’은 화자가 추억하는 ‘옛날’ 고향에서의 유년 시절을 의미한다.

## 표현

### 개념 적용하기

본문 025쪽

- 1 ○ 2 밤 3 서리서리, 구뽀구뽀 4 어른 님 오신 날 밤  
5 × 6 어둠 7 ㉠ 8 ㉡

### 동지(冬至)·달 기나긴 ~ \_황진이

해제: 이 시조는 입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입이 없어 쓸모없는 밤의 시간을 잘라다가 입과 함께하는 짧은 밤에 붙이겠다는 시인의 기발한 발상이 돋보인다.

주제: 입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

특징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감각적 묘미를 살림

구성

초장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낸
중장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베어 낸 밤을 넣어 둠
종장	입이 오시면 밤을 펼쳐 길게 만들고 싶음

## 한눈에 보기

한 허리를 버혀 내여 가운데를 자를 수 있음	서리서리 너털다가 이불 아래에 넣을 수 있음	구뽀구뽀 퍼러라 여러 굵이로 펼 수 있음
-----------------------------	-----------------------------	---------------------------

‘밤’이라는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 아침 이미지 1 \_박남수

해제: 이 작품은 대표적인 이미지즘 시 중 하나로 어둠을 지나 아침이 되면서 온갖 사물이 깨어나는 모습을 시각적, 동적 이미지로 구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둠을 부정적 이미지로 여기지만 이 시에서는 만물을 포용하고 잉태하는 근원이자 모태로 보고 있으며, 아침이라는 신선하고도 동적인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연관하여 표현하고 있다.

주제: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의 모습

특징: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

구성

1~2행	물상의 생성	6~10행	아침의 활기찬 분위기
3~5행	어둠의 소멸	11~12행	아침의 본질

## 한눈에 보기

어둠 온갖 물상을 잉태하고 아침이 되면 사라짐	→ 시간의 흐름	아침 = 새벽 만물이 생동하고 즐겁게 움직이는 시간
------------------------------	----------	---------------------------------

1 ‘동지’, ‘춘풍’이 각각 겨울과 봄의 계절감을 드러낸 시어이다.

2 ‘동지(冬至)·달 기나긴 밤’이라는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구체적인 실체를 지닌 사물처럼 표현하여 입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서리서리’와 ‘구뽀구뽀’는 모두 모양을 흉내 내는 말로 생동감을 자아낸다.

4 ‘동지(冬至)·달 기나긴 밤’이 입이 없는 부정적인 시간이라면, ‘어른 님 오신 날 밤’은 입이 존재하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둘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5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에는 시각을 청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6 일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어둠’을 이 시에서는 만물을 잉태하는 시간으로 그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7 이 시는 어두운 저녁에서부터 해가 뜬 아침까지,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8 6~8행에서는 생명력이 없는 물상들을 사람처럼 표현함으로써 생동감을 주고 있다. ㉡에서도 사람이 아닌 ‘오랑캐꽃’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표현상의 특징

유형 적용하기

본문 028~029쪽

1 ① 2 ④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성에꽃, 친구 2 비유, 역설 3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수감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강조하였다. 4 계절(시간) 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6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이라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을 통해 눈이 내리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 가 성에꽃 \_최두석

해제: 이 시는 새벽 시내버스의 창가에 피어난 성에꽃을 통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함께 만들어 낸 성에꽃이기에 차갑지만 기막히게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며 당대의 암울한 정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  
 특징 •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남  
 • 감각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함

구성

1~4행	버스 유리창에 핀 성에꽃을 봄
5~10행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로 피어난 성에꽃의 아름다움
11~19행	서민들의 삶에 공감함
20~22행	수감된 친구에 대한 그리움

한눈에 보기



### 나 첫사랑 \_고재중

해제: 이 시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한 눈의 모습을 노래하며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 낸 사랑의 고귀함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에 '아름다운 상처'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 도달한 성숙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특징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운율감을 줌

구성

1연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2연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헌신적인 노력
3연	인내와 헌신 끝에 얻은 아름다운 눈꽃
4연	눈꽃이 진 나뭇가지에 피어난 봄꽃

한눈에 보기



## 1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가)에서는 마지막 행의 '친구여'에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고, (나)에서는 3연의 '저 황홀 보아라'에서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공감각적 심상은 (가)와 (나)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음성 상징어는 (나)의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에만 나타난다.  
 ④ 반어적 표현은 (가)와 (나)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는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문장이 사용되었을 뿐, 명령형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는 '보아라'에서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 2 특정 부분의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A]에서는 '차가운 아름다움'이라는 역설적 표현이면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향한 화자의 연민과 애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촉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아름다운 상처'라는 시구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ㄱ. (가)에는 겨울이라는 계절만 드러날 뿐, 계절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더구나 [A]에서는 계절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B]에서는 봄이라는 계절만 드러나 있다.

ㄷ. (가)의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가슴이던가'에서, (나)의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A]와 [B]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감상

개념 적용하기

본문 031쪽

1 × 2 수미 상관 3 자유로운 삶, 이상 세계 4 × 5 ㄱ, ㄷ 6 ⑤

### 파랑새 \_한하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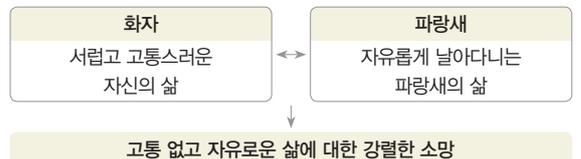
해제: 이 시는 한센병 환자였던 시인이 천형(天刑)과도 같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으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간결한 형식 속에 담아내었다.

주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특징: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희망과 자유, 한과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구성

1연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픈 소망
2연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3연	서러움에서 비롯된, 자유에 대한 소망
4연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픈 소망

한눈에 보기



**꽃뎨불 \_신석정**

해제: 이 시는 광복 직후인 1946년에 발표된 것으로, 고통스러웠던 일제 강점기가 끝난 시점에도 여전히 혼란을 겪는 사회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진정한 민족 국가의 수립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작품이다. 꽃과 수풀이 한데 얽힌 것을 의미하는 ‘꽃뎨불’에 빗대어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민족 화합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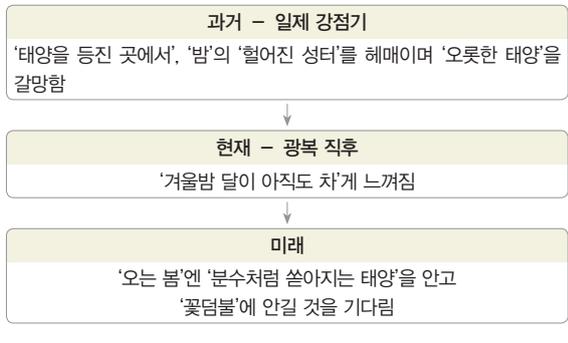
주제: 광복 후의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에 대한 염원

특징: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형상화함

구성

1연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
2연	조국의 광복에 대한 갈망
3연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 상황
4연	조국의 광복
5연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에 대한 기대

**한눈에 보기**



**1** ‘푸른 하늘’, ‘푸른 들’과 같이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시인이 병 때문에 누리지 못한 자유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파랑새와 같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한다.

**3** 시인이 나병에 걸려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으므로 ‘파랑새’는 곧 그가 꿈꾸던 자유로운 삶이나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태양’은 조국의 밝은 미래, 즉 광복을 의미한다. ‘밤’은 일제 강점기를 의미하므로 두 시어는 대조된다.

**5** (가)는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상징적 시어들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주제를 형상화하였다(ㄱ). 또 3연에서 반복과 열거로 운율을 형성하고 상황을 강조하였다(ㄴ).

**6** 화자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오는 봄’에 ‘꽃뎨불’에 ‘안겨 보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는 완전하게 화합된 독립 국가를 이룰,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작품의 종합적 감상**

유형 적용하기

본문 034~035쪽

1 ② 2 ④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한, 풀이 **2** 김춘택이 평생 벼슬을 해 보지 못하고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갔을 때 지은 작품이다. **3**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냄으로써 한을 극복한다. **4** 저 각시님 **5** 광한전, 설움 **6** 구름, 바람

**가 한국 문학의 전통**

해제: 이 글은 한국 문학의 전통과 사대부 시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 문학 작품들 사이에 면면히 흐르는 공통적 특질은 ‘한’과 ‘풀이’라고 설명하고, 김춘택의 「별사미인곡」의 창작 배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배 가사를 비롯한 사대부 시가들이 어떤 ‘한’을 어떤 ‘풀이’로 극복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주제: 사대부 시가를 통해 본 한국 문학의 전통으로서의 ‘한’과 ‘풀이’

**나 별사미인곡 \_김춘택**

해제: 이 시가는 조선 숙종 때의 문인인 김춘택이 유배를 갔을 때 지은 작품으로, 작가 스스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본떠 지었다고 밝힌 대화 형식의 유배 가사이다. 모시던 임과 이별한 슬픔을 한탄하는 상대방에게 화자는 입을 모셔 본 적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애달픈 것임을 강조하며 입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낸다. 임금에 대한 원망은 거의 보이지 않고, 간절한 충정을 읊었다는 점에서 연군 가사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주제: 입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변함없는 충정

특징: 두 여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됨

**한눈에 보기**



**1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나)에서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룰가’는 길쌈을 할 줄 모를 뿐 아니라 가무에도 재능이 없다는 것으로, 바로 앞의 시구와 이어져 입이 자신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따라서 임금과 관계가 어긋나서 생긴 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책하는 말로 볼 수 있다.

**2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목란’이나 ‘청음’을 계절과 관련이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란’으로 만든 꽃신은 입을 모시려고 정성을 다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수단에 해당하고, ‘한여름 청음’은 죽어서라도 입 가까이 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담은 것이므로, 입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계절적 소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A]에서 작가 김춘택은 평생 벼슬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모신 적 없는 임과의 추억을 회상한다고 볼 수 없다.

1 ② 2 ① 3 ④

**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_황지우**

해제: 이 시는 19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폭압적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으로, 영화를 보면서까지 애국심을 강요받았던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우리'로 설정된 화자는 애국가 영상 속의 새들이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끼룩', '깰깰' 등의 음성 상징어에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암울한 현실로 인한 좌절감

특징 •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풍자함  
•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부정적 현실을 부각함

구성

1~2행	영화를 보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함
3~10행	비상하는 흰 새 떼들을 부러워함
11~20행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다시 주저애편

**한눈에 보기**



**나 도다리를 먹으며 \_김광규**

해제: 이 시는 도다리를 먹는 일상의 행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구분하려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화자는 한쪽으로 눈이 몰린 도다리를 먹다가, 그 도다리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결코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리고 언제나 왼쪽과 오른쪽을 견주어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며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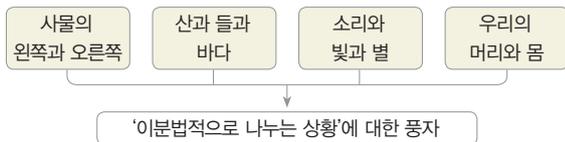
주제: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인간 세태에 대한 풍자

특징: 도다리와 인간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함

구성

1연	인간의 독선적인 사고
2연	인간의 이분법적인 사고
3연	자연도 좌우로 나누는 인간
4연	무엇이든 대립적으로 구분하는 인간
5연	도다리를 보고 비웃는 인간
6연	인간은 모르는 존재의 본질적 가치

**한눈에 보기**



**1 시어의 의미와 기능**

(가)의 '흰 새 떼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화자와 달리 '이 세상 밖 어디론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존재이다. <보기>의 '날으는 새'는 구속된 상황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화자와 달리 푸른 하늘과 눈부신 산맥에서 자유롭게 살아

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가)의 '흰 새 떼들'과 <보기>의 '새' 모두 자유로운 존재로 화자가 처한 상황과 대비되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하는 우리를 보고 ①이 '끼룩거리면서', '깰깰대면서' 비웃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확실히 강요된 애국심에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냉소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②는 <보기>의 화자를 비웃고 있지 않다.

③, ④ ①과 ②는 모두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롭지 못한 화자와 대비되어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화자는 이 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⑤ (가)의 화자는 ①과 달리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떠나지 못하고 자기 자리로 다시 주저애편다. 따라서 ①은 화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보기>의 화자는 자유로운 ②를 보고 구속된 상황에서의 그리움과 고통을 더욱 느끼고 있다. 따라서 ②를 화자에게 희망을 주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알아 두기**

**새 \_김지하**

• **해제:** 이 시는 감옥 창살 밖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느끼는 화자의 암울한 심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새', '사슬' 등의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물어뜯어도', '썩은 피' 등의 강렬한 시어를 통해 화자의 고통을 부각시키고 있다.  
• **주제:** 억압적 현실로 인한 절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

**2 작품의 이해와 감상**

1연은 인간이 하느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느님이 인간을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신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이 드러난다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2연에서 인간은 언제나 '왼쪽과 오른쪽'을 견주어 나눈다고 한 것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인간의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

③ '나누지 않고는 건딜 수 없어'에는 모든 것을 둘로 구분하여 차별하려는 인간의 습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인간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④ '낮설어'는 대립을 일삼는 인간을 도다리의 시각에서 바라본 표현이다.

⑤ 화자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도다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느라 본질을 모르는 인간의 우매함을 비판하고 있다.

**3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나)에서는 자연물인 '도다리'를 통해 인간들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풍자하고 있다. (가)에서도 자연물인 '흰 새 떼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들은 화자와의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 억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연물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를 풍자한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영화 시작 전 애국가 영상을 본 경험이, (나)에는 도다리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일상적 경험이 시적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가)에서는 자유로운 '흰 새 떼들'과 억압적인 화자의 상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나)에서는 무엇이든 양분하려는 '인간'과 한쪽으로 쏠린 눈으로 그런 인간을 낮설게 바라보고 있는 '도다리'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③ (가)에서는 '끼룩거리면서', '깰깰대면서'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현실을 비웃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고, (나)에서는 '푸들푸들'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도다리가 인간을 낮설게 느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우리가' 영화관에서까지 애국가를 경청했던 상황을 통해 당시 폭압적 현실을 비판하고, (나)는 무엇이든 둘로 나누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분법적인 인간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화자를 '우리로 설정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환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② 2 ② 3 ①

가 수라 \_백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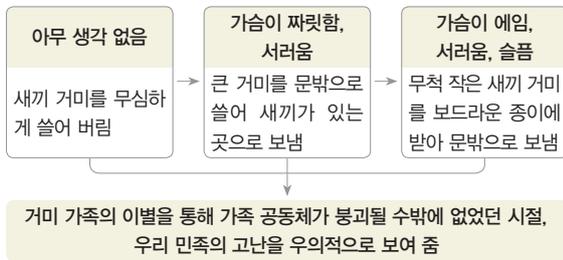
해제: 이 시는 화자가 방바닥에 연이어 나타난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거미 가족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해체된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상징한다. 거미 가족의 이별과 '수라'라는 제목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심각했던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가족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특징 · 구조의 반복과 변용을 통해 정서를 점층적으로 제시함  
 · 화자의 행동과 정서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나타남

구성

1연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림
2연	새끼를 만나라고 큰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림
3연	작은 새끼 거미도 가족을 만나라고 문밖으로 버리고 슬퍼함

한눈에 보기



나 못 위의 잠 \_나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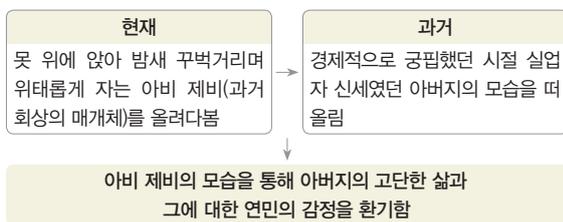
해제: 이 시는 못 위에서 꾸벅거리며 잠을 자는 아버 제비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작품이다. 화자는 지붕 아래 작은 제비집의 제비 가족을 보며, 지난날 실직자인 아버지와 함께 늦은 밤 어머니를 마중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던 쓸쓸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여 비애와 좌절감을 느꼈을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 제비의 모습에 투영하여 아버지 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등의 시각적 심상을 통해 과거의 장면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제: 유년 시절의 아버지 에 대한 회상과 연민  
 특징 ·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 화자의 회상과 시공간적 배경의 구체적 제시로 화자의 어린 시절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구성

1~8행	못 위에서 꾸벅거리는 아버 제비(현재)
9~25행	실업자인 아버지와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 에 대한 회상(과거)
26~27행	어린 시절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못 위의 아버 제비

한눈에 보기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거미 새끼', '큰 거미', '작은 새끼 거미'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가슴 찢어짐', '서러움', '가슴이 에이는 듯'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비좁은 등지 옆에 박혀 있는 못 위에서 불편하게 자고 있는 '아버 제비'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화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 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한 소재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어, 대립하는 이미지의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현재 화자가 겪은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나)는 화자가 갓 태어난 새끼 제비가 찬 제비집 옆, 못 위에서 잠든 아버 제비의 모습을 보고 어렸을 적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의 처지가 아닌 아버지 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창백했던가요'와 같이 해요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진술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 '반쪽달 달빛',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린 시절 아버지 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또 (가)에서도 거미 가족의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드러날 뿐 경쾌한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2 시상 전개 방식

[A]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거미'를 보고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다가 [B]에서 연민, 동정의 감정이 생기고 [C]에서는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이는 모두 화자의 방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감정이며, 화자의 공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A], [B], [C]에서는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는 화자의 행위가 거듭 반복되고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새끼 거미를 아무 생각 없이 쓸어 버렸으나 [B]에서는 큰 거미를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고 하였다. 또 그 거미를 버릴 때는 서러워하였다. 더 나아가 [C]에서 더 작은 새끼 거미를 보고는 가슴이 에이는 듯하다고 했고, 그 새끼 거미가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며 슬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미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A]에서 [C]로 갈수록 시행이 점차 길어지면서 화자의 정서가 표출된 시구도 늘어나고 있다.

⑤ [A]에서는 '거미 새끼'를 쓸어 버린 화자의 상황만 표현하였으나 [B]에서는 '큰 거미'가 새끼를 잃어버린 상황 및 정서를, [C]에서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엄마를 찾는 상황 및 정서를 화자가 추측하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A)는 과거에 찍은 사진을 현재의 시점에 중첩시켜 한 사진 안에 담고 있다. 또 (나)에서는 현재 못 위에 앉아 있는 아버 제비의 모습과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중첩시키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A)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켰다고 할 수 있다(ㄱ). 또한, (A)에서는 앨범 속에서 꺼낸 옛 사진이, (나)에서는 '아버 제비'의 모습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ㄴ. (나)에서 화자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느꼈을 무게감을 떠올리며 연민의 마음을 느낀다. 하지만 (A)에서는 아버지를 멋진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ㄹ. (A)도 (나)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사진 속 구체적 공간과 현재의 공간을 결합하고 있다.

1 ⑤ 2 ③ 3 ③

**사미인곡 \_정철**

해제: 이 시가는 임금에 대한 신하로서의 충성과 정성을 사랑하는 임을 향한 연정에 빗대어 노래한 연군 가사이다. 임금을 임으로, 화자를 임과 생이별하고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으로 설정하여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즉 임금인 선조를 사모하는 연군의 정을, 한 여인이 이별한 임을 연모하는 마음에 빗대어 노래한 것이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화자 자신의 외로움과 일편단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연군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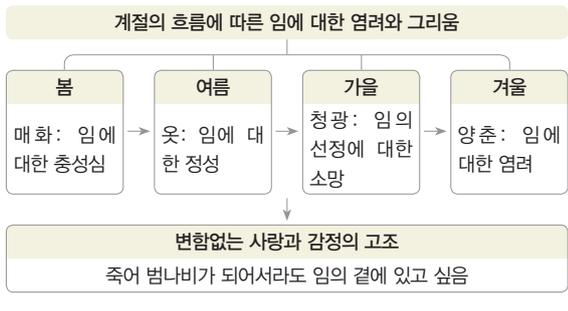
- 특징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다양한 표현 기법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절묘한 언어를 구사하여 문학성이 뛰어난

구성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본사 1	춘원(春怨)	충정을 임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본사 2	하원(夏怨)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
본사 3	추원(秋怨)	임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람
본사 4	동원(冬怨)	임에 대한 염려와 외로움
결사	죽어서도 임을 따르겠다는 다짐과 변함없는 마음	

수록

**한눈에 보기**



**1 시상 전개 방식**

이 시가는 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변화 모습을 그리면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동풍이 부는 봄에는 '매화'를 임에게 보내어 자신의 변함없는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하고, 녹음이 깔리는 여름에는 자신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오색실로 '옷'을 지어 임에게 보내고 싶어 한다. 기러기 우는 가을에는 '청광'을 임금에게 보내어 임금이 선정을 베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천지가 얼고 막히는 겨울에는 추운 곳에 계실 임을 염려하여 임에게 '양춘'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1 화자는 자연물의 속성을 빌려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 인간의 삶과 대비한다고 볼 수 없다.
  - 2 화자의 시선은 주로 화자가 거처하는 장소와 주변 사물에 머물러 있을 뿐, 특별하게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 3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방, 누각' 등으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자의 내면은 임에 대한 충정과 그리움 등으로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내면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 4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방식의 전개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 시가는 화자

의 독백에 가까운 방식이 나타난다.

**알아 두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과거-현재-미래', '봄-여름-가을-겨울', '아침-점심-저녁'과 같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며, 추보식 시상 전개라고도 한다.

- 예
- 이육사, 「광야」: 과거(까마득한 날)-현재(지금)-미래(천고의 뒤)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김광균, 「외인촌」: 해 질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2 시어의 의미와 기능**

'양춘'은 따뜻한 봄기운으로, 겨울에 춥게 지낼 임이 걱정되고 염려되어 따뜻한 햇살을 보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의미한다. 화자가 임과 천생연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은 현재 제시된 본사와 결사가 아니라 서사에 드러나 있다. 서사에서 화자는 자신이 임이 생길 때 따라 생겨난 한평생 연분이며, 자신을 하늘에서 임금을 모시다가 지상으로 떨어진 선녀에 비유하여 운명적 인연임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1 '금자'와 '백옥함'은 '자'와 '함'을 미화한 표현으로, 임을 위한 옷을 지을 때 값비싸고 좋은 도구로 짓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성을 드러낸다.
  - 2 '달'과 '북극성'은 하늘 높이 떠 있는 자연물이다. 이는 '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임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고전 시가에서 해, 달, 북극성과 같은 자연물은 하늘에 높이 떠 있다는 속성으로 인해 임금을 비유하는 시어로 자주 사용된다.
  - 4 화자는 현재 임을 만날 수 없으므로 차라리 죽어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꿈'은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5 '범나비'는 훨훨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 따라서 임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시가는 서인인 작가 정철이 반대파인 동인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난 후, 고향에 머물면서 지은 가사이다. 따라서 임은 '임금'을, 임에 대한 그리움은 '화자의 충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C]에서 화자는 '청광'을 임금 계산 궁궐에 부쳐 보내고 싶어 한다. 임금이 그 '청광'으로 온 세상을 대남같이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C]에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임금이므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1 화자가 '매화'를 임금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임금이 '매화'를 보고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알아주고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화'는 전통적으로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 2 '산'과 '구름'은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자연물이다. 따라서 임금의 충명을 어지럽히는 간신의 무리나 동인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 4 화자는 겨울의 풍경을 천지가 얼고 막혀 사람은 물론 날짐승조차 없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주변 풍경의 묘사는 임과 이별해 홀로 있는 작자의 외로움을 나타낸 것이다.
  - 5 화자는 임에 대한 사랑, 즉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는 '향'이 묻은 날개로 임을 좇을 것이라며 충신의 변함없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1 ④ 2 ⑤ 3 ⑤

**가 사친 \_신사임당**

해제: 이 작품은 신사임당이 자신의 고향인 강릉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한시이다. '사친(思親)'은 '부모(親)'를 '생각하다(思)'라는 뜻으로, 부모님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신사임당이 친정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외로운 심정을 둥근 달에 투영한 것과 '반의지회'라는 고사를 인용한 것에서,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엿볼 수 있다.

특징 ·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자연물에 투영함  
· 대구법을 사용하여 고향의 정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주제: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구성

1~2구	고향에 대한 그리움
3~6구	고향의 모습 회상
7~8구	고향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한눈에 보기**



**나 상사별곡 \_작자 미상**

해제: 이 시가는 작자·연대 미상의 조선 후기 가사로서 입과 이별한 여인의 외로움과 임을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상사(相思)'는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라는 뜻이다. 4음보의 연속체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비유와 과장, 자연물을 활용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십이 가사의 하나로 남녀의 순수한 연정을 주제로 한 상사류의 가사 가운데 전형성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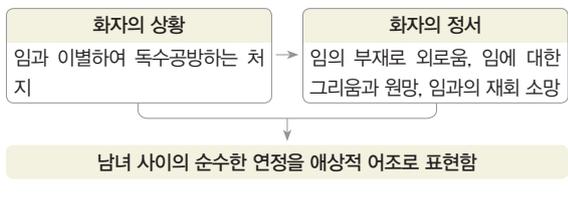
주제: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 설의법과 반복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함  
·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으로 화자의 처지를 구체화함

구성

1~9구	독수공방하는 화자의 처지
10~27구	자신의 처지 한탄과 임에 대한 그리움
28~36구	입과의 재회 소망

**한눈에 보기**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집간 딸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고, (나)는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는 회상은 나타나지만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나)에서는 회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의 화자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그리워하지만 회한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역시 화자가 이별한 임을 그리워할 뿐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고향인 강릉 땅을 다시 밟아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 것을, (나)의 화자는 입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체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날 뿐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알아 두기**

**신사임당의 삶과 가치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신사임당은 19세에 덕수 이씨 원수(元秀)와 결혼하였는데, 몇 달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친정에서 삼년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사임당은 현철한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천부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으며, 친정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애정 또한 절절하였다. 여자가 출가한 뒤에는 오직 시집만을 위하도록 요구하는 유교적 가치 규범 속에서도 친정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것은, 신사임당이 규격화된 규범보다 인간 본연의 정과 사랑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표현상의 특징**

도치법은 정서를 환기시키고 변화를 주기 위하여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문장 표현법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와 (나) 모두 어순을 도치시킨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3~6구에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며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가)에서 화자는 '달'을 '외로운 둥근 달'이라고 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나)의 15~16구에서 '깊고 깊고 다시 깊고', '높고 높고 다시 높고'와 같이 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의 3~4구, 5~6구, (나)의 5구와 6구, 15~16구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

**3 시어의 의미와 기능**

사랑이 모여 '뫼'가 된다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이 산만큼 높음을 나타낸 것으로, '뫼'는 임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입과의 재회가 어려워진 상황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작가의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고 멀리 서울로 시집을 갔다는 것을 고려하면, '천 리'는 화자와 친정어머니와의 물리적 거리를 나타냄과 동시에 친정어머니에게 가기 어려운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했음은 '강릉 땅'을 다시 밟고 싶다는 시구에 잘 드러나 있다.

③ ㉠을 통해 입과 이별하고 혼자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다.

④ ㉠은 '우리 남군'이 화자를 찾기 힘들도록 방해하는 자연물이다.

**알아 두기**

**「상사별곡」에 나타난 연정**

「상사별곡(相思別曲)」은 시작부터 입과 이별한 화자가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서러움을 단적으로 표출한다. 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상사류의 가사들은 대부분 임금을 흠모하는 연군지정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들인데 반해, 이 노래는 그러한 성리학적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 간의 순수한 연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대부들의 전기 가사와 구별된다.

## II 산문 문학

### 인물

#### 개념 적용하기

본문 047쪽

1 × 2 × 3 주동 4 할아버지 5 대화를 통한 간접 제시 6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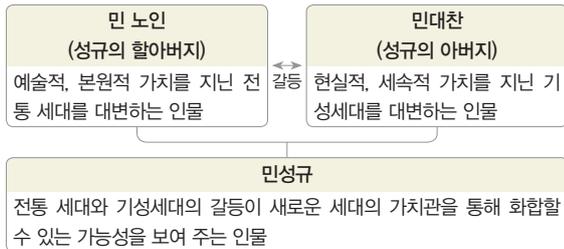
#### 흐르는 북 \_ 최일남

해제: 이 소설은 1980년대 서울 중산층 가족의 삶을 소재로 하여 '할아버지-아버지-손자'로 이어지는 세대교체 양상을 보여 주며,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출세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인 민대찬(아버지)은 가정보다는 개인의 삶에 충실했던 아버지인 민노인을 원망하고 부정한다. 이들의 대립은 예술적·본원적 삶의 가치와 세속적·속물적 삶의 가치의 대립을 의미하는데, 이는 새로운 세대가 갖는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극복될 가능성을 보인다. 속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사회적 모순에 대항하는 현실 변혁적인 삶을 선택한 성규(아들)는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로, 명예와 실리를 추구하는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예술 정신을 추구하는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옹호한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의 극복이 어떤 한 세대를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제: 예술과 삶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른 세대 간 갈등과 그 극복

특징 · '북'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 줌  
· 갈등의 해결을 제시하지 않고 결말에 이름으로써 여운을 줌

#### 한눈에 보기



####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젊은 시절 북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민노인은 아들(민대찬)의 집에 얹혀살며, 아들의 반대로 집에서 북을 마음대로 치지 못함
전개	외출을 나갔다가 손자 성규를 만난 민노인은 성규에게서 탈춤 발표회 때 북을 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습 후에 공연에 참여함
위기	민노인은 탈춤 공연에서 북을 치면서 감동과 신명을 느낌
절정	성규와 함께 공연을 한 것 때문에 아들 내외는 민노인을 질책하고 성규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함
결말	얼마 후 성규가 데모를 하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민노인은 손자의 데모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북을 울림

소문

1 성규는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화해시키려 노력하는 것이지,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2 아버지는 성규의 말을 무시하며 자신이 옳다고 강요하는 태도로 말을 하고 있다.

3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피하고 있으므로 성규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주동 인물에 해당한다.

4 아버지와 성규는 할아버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5 아버지와 성규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 할아버지는 자신의 광대 기질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북'을 치며 방랑하는 삶을 살았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갈등한다.

### 인물의 심리 및 태도

#### 영향 적용하기

본문 050~051쪽

1 ⑤ 2 ④

####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추소서, 양산백 2 추상서 3 자신이 양산백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절을 지키는 것임을 주장하여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있다. 4 정절 5 가경

#### 양산백전 \_ 작자 미상

해제: 이 소설은 남녀가 애정을 성취하는 결연담과 영웅적 인물의 활약을 그린 영웅담을 결합시킨 작품이다. 전반부는 천상에서 정을 통하다가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땅으로 내려온 남녀 주인공이 혼사 장애를 극복하고 연분을 이루어 가는 애정담이 주를 이루고, 후반부는 남주인공의 영웅적인 활약을 담은 전쟁담이 이어진다. 남녀 주인공이 부모의 일방적인 강권에 따른 혼사 장애를 죽음을 무릅쓰고 극복하여 마침내 인연을 성취해 가는 줄거리를 통하여, 결혼에 있어서 남녀 간의 사랑이 소중함을 깨우치는 근대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주제: 죽음을 무릅쓴 연인의 사랑과 재생 후의 성취 / 고난 극복을 통한 애정 성취

특징 · 천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며 적장 소설의 요소가 나타남

· 주인공의 자유연애 사상이 나타남

**한눈에 보기**

애정의 시련	부친이 양산백과의 혼인을 반대하고 추소저를 심재상의 아들과 정혼시키려 함
죽음	양산백이 유언을 남기고 죽은 후, 추소저도 따라 죽음
재생	양산백과 추소저의 혼백이 환생함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적강해 명문 거족의 집안에 출생해 자라던 양산백과 추양대가 운항사에서 만나 의형제를 맺고 동문수학하게 됨
전개	남장을 하고 있던 추양대의 성을 의심하던 양산백이 추양대가 여자임을 알게 됨. 이후 양산백은 추양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추양대는 후일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감
위기	추양대의 부친이 그녀를 심재상의 아들과 정혼시키려 함. 양산백이 이를 알게 되고 추양대는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혼인하게 됨
절정	양산백이 상사병으로 죽음을 택하자 이를 알게 된 추양대도 그의 무덤에 뛰어들어 혼이 되어 서로 만나게 됨. 두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된 옥황상제가 두 사람을 회생시킴
결말	두 사람은 양가의 승낙 하에 부부가 되고 양산백이 문무 양과에 장원 급제함. 양산백은 오랑캐를 무찔러 그 공을 인정받아 높은 벼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승천함

**1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A]에서 추소저는 자신이 혼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정절에 마땅하다고 밝히며 추상서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고, [B]에서 상서 부부는 추소저의 말에 따라 추소저와 양산백이 결혼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추소저가 자신이 했던 맹세를 지키고자 함을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B]에서는 상서 부부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므로 자긍심을 표출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A]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추소저가 자신의 현재 생각을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B]에서도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에서 추소저는 아버지의 말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칠 뿐 아버지의 부모덕행에 대한 자신의 불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B]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자책하는 말이다.

④ [A]에서는 사람의 도리를 들어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딸의 판단을 좇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결정이 옳바르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이 글에서 양산백은 '효'와 '절'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효'를 따르지 못하고 '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죽음으로 증명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추소저는 아버지가 심의량과의 혼사 이야기를 꺼내자, 양산백과의 언약을 이야기하며 절개를 지키려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한다.

- ② 추소저는 '효'와 '절'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아버지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여 양생의 구애를 거절하게 되고, 이를 안 양생은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된다.
- ③ 추소저가 양생을 따라 죽자, 상서 부부는 그들의 애정을 지켜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 ⑤ 추소저가 심의량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양생은 추소저가 원래하는 길가에 자신을 묻어 줄 것과 자신의 편지를 추소저에게 전해 달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음을 택한다. 이것으로 보아 양생은 죽어서까지 추소저와의 애정을 지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 갈등**

**개념 적용하기**

본문 053쪽

1 × 2 ○ 3 순행적 4 나무다리 5 ②

**돌다리 \_이태준**

**해제:** 이 소설은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는 아들과, 땅이 천지 만물의 근원이라 생각하며 땅 팔기를 허락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갈등을 통해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땅을 이해타산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아들에게 땅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정신적, 전통적 가치의 소중함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돌다리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 할아버지와 조상들의 사연이 담겨 있는 다리로서 한 가족사의 일부로 형상화되고 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돌다리를 고치는 행위는 바로 무너져 가는 전통적 가치관을 보존하여 후대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주제:**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특징:** '돌다리'와 '나무다리'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대비하여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냄

**한눈에 보기**

<b>아버지</b>	<b>아들(창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골에 사는 농부</li> <li>• 땅을 삶의 터전이자 만물의 근원으로 여김</li> <li>• 전통적 가치관(돌다리)을 중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에 사는 의사</li> <li>• 땅을 금전적 가치를 지닌 수단으로 인식함</li> <li>• 근대적 가치관(나무다리)을 중시함</li> </ul>
<p>땅을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이 지닌 가치관의 대립이 두드러짐</p>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창섭은 의사의 오진으로 누이동생이 죽자 아버지가 권하는 농업 학교에 가지 않고 의사가 됨
전개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팔 생각으로 고향에 감
위기	창섭은 땅을 팔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아버지를 설득하려 함
절정	아버지는 땅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땅을 팔 수 없다고 말함
결말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창섭은 서울로 올라가고 아버지는 땅이 하늘의 이치임을 되새김

1 이 글에서는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는 아들과, 땅을 삶의 터전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는 근대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2 아들은 땅을 금전적 수단으로 여기며, 그것을 팔아 자신의 병원 확장 자금으로 쓰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다.

3 이 글은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순행적 구성을 보인다.

4 돌다리를 고치고 온 아버지에게 아들은 '나무다리'를 놓지 왜 돌다리를 고치냐고 묻는다. 이를 통해 '나무다리'가 전통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돌다리와 대비되어 실리적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5 아버지가 땅을 생명의 근원이자 선조와 자신의 추억과 노력이 서려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 자연 친화적, 인간 중심적 가치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들은 실용적,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

### 사건의 전개 양상

유형

적용하기

본문 056~057쪽

1 ② 2 ③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순행적 구성 2 이별 3 부모의 반대, 흥건적의 난, 명부의 법 4 심리, 원앙 5 인간과 운명의 외적 갈등

#### 이생규장전\_김시습

해제: 이 소설은 『금오신화』에 실린 다섯 편 중 하나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간절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흥건적의 난을 중심으로 글의 전반부에는 이생과 최 여인이 혼인하기 전까지의 사실적인 내용을 그리고 있고, 후반부에는 죽은 최 여인과 이생의 만남이라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전기적 요소는 시련을 극복하고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인물들의 만남과 이별의 반복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 애뜻하게 느끼게 하며,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른 마지막 이별 장면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준다.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특징 • '만남-이별'의 반복 구조가 나타남

• 삽입 시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압축적으로 전달함

#### 한눈에 보기



####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이생이 우연히 담 너머로 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짐
전개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이생 부모의 반대로 이별하고, 최 여인이 상사병에 걸리자 최 여인 부모가 이생 부모를 설득하여 두 사람을 혼인시킴
위기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최 여인이 정조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음
절정	최 여인의 혼령이 돌아오고, 이생은 최 여인과 이삼 년 동안 행복하게 삶
결말	최 여인이 명부의 법을 따라 저승으로 떠나며, 이생과 이별하게 되고, 이생도 병들어 죽게 됨

수록

## 1 서사 구조를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이생과 최 여인의 거듭된 만남과 헤어짐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 된다. 최 여인이 결국 저승과 이승의 명부의 법 때문에 이별을 결심하고,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현실에서의 재회를 전제로 사랑이 연기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이생은 죽은 최 여인의 혼령과 다시 만나고 있다.  
 ③ (가)에서 이생과 최 여인이 직접 시를 주고받으며 만나는 것과는 달리 (다)에서는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④ (나)에서는 흥건적의 난(사회적 요인) 때문에 이별하였지만 (다)에서는 이승과 저승이 분리된다는 명부의 법(운명적 요인) 때문에 이별하게 되었다.  
 ⑤ 이 작품에서는 '만남-이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주인공들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갈등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 2 사건의 전개 양상을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최 여인이 '무산 선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저승과 이승으로 나누어진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글의 이생과 최 여인의 사랑은 결국 운명적 요인으로 좌절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도적떼'는 흥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흥건적의 난으로 최 여인이 죽었다.  
 ② 짝 잃은 '원앙'은 흥건적의 난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생과 최 여인을 상징한다.  
 ④ 명부의 법 때문에 이별하게 된 상황을 '깨진 거울'이 갈라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⑤ 명부의 법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힌다고 표현하고 있다.

#### 알아두기

『금오신화』에 「이생규장전」과 같이 실린 「만복사저포기」, 「만복사저포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남원의 떠돌이 노총각 양생이 만복사라는 절에서 부처와 저포(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유희) 놀이를 하여 이기자 소원을 빌어 배필을 맞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어느 귀인의 죽은 딸이 현신한 영혼이었다. 여자는 저승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사라지고, 양생은 홀로 귀가한다. 이후 양생은 여자를 그리워하며 지리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다가 소식이 끊긴다. 이와 같이 「만복사저포기」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사랑,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생규장전」과 비교할 만하다.

## 소재 / 배경

### 개념 적용하기

본문 059쪽

1 관촌, 전제민촌 2 ○ 3 ⑤ 4 ③

#### 관촌수필 \_이문구

해제: 이 소설은 작가의 어린 시절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성장했던 고향 마을, '관촌'의 생활상을 회상의 형식을 통해 사실적으로 그린 연작 소설(총 8편의 단편으로 구성)이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제3편으로, 천한 출생인 웅점이의 결혼 생활과 인생 유전을 가슴 아프게 그리고 있다. 정이 많고 부지런했던 웅점이와 성장기를 함께 보냈던 서술자가 6·25 전쟁 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이다.

주제: 웅점이의 가슴 아픈 인생 유전

특징 · 1인칭 독백체로 서술함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농촌의 변화를 비판함

#### 한눈에 보기

관촌 마을

공동체적 유대 관계가 남아 있는 공간

계층 간의 위계 의식이 남아 있는 공간

#### 작품 전체 보기

제1편 일락서산 (日落西山)	성묘를 하러 고향에 간 '나'가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고향을 둘러보며 할아버지와 얽힌 추억을 회상함
제2편 화무십일 (花無十日)	6·25 전쟁으로 일가가 몰락한 윤 영감을 통해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던 '나'의 어머니를 회상함
제3편 행운유수 (行雲流水)	유년 시절, '나'와 성장기를 함께했던 소녀 웅점이의 가슴 아픈 인생 유전을 회상함
제4편 녹수청산 (綠水靑山)	대복이와 그 가족에 얽힌 이웃의 순박한 삶과 그 삶이 퇴색되어 가는 과정을 그림
제5편 공산토월 (空山吐月)	어린 시절 '나'와 석공네 집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와 석공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감동적인 인간상을 그림
제6편 관산추정 (關山擧丁)	유년 시절의 고향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을을 흐르던 한내[大川]가 도시에서 밀려 들어온 퇴폐적 소비문화의 하수구로 전락한 실상을 그림
제7편 여요주서 (與謠註序)	친구가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평을 잡아 팔다가 발각되어 자연 보호를 위해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횡포에 시달린다는 이야기임
제8편 월곡후야 (月谷後夜)	성년이 된 '나'가 고향을 둘러보며 경험한 이야기로, 벽촌에서 소녀를 겁탈한 사건을 둘러싸고 마을 청년들이 범인에게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이야기임

수독

1 이 글의 중심인물인 웅점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관촌과 이웃 부락인 전제민촌이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다.

2 웅점이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관촌에 나타나 있다. 이로 볼 때 관촌에는 공동체적 유대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마을 총각들이 웅점이가 마음이 넓고 부지런하여 눈독을 들이기는 하지만, 혼사에서 근본을 따지던 시절이기에 근본이 천한 웅점이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4 관촌의 마을 총각들이 웅점이의 미천한 신분으로 인해 그녀와의 혼사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서 계층 간의 위계 의식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재 / 배경의 의미와 기능

### 유형

### 적용하기

본문 062~063쪽

1 ② 2 ②

####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고무신짝 2 1인칭 주인공 시점 3 요약, 추측 4 고무신 짝을 아무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렸다. 5 큰 산

#### 큰 산 \_이호철

해제: 이 소설은 액운을 환기하는 고무신짝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소시민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대학 출신 샐러리맨 부부가 비교적 많이 사는 마을에서, 즉 어느 정도 교양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조차 비양심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고향 마을의 큰 산을 떠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음의 중심을 잃은 현대인들에게는 큰 산처럼 공동체의 질서와 균형을 잡아 주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 비판과 넉넉한 삶의 회복에 대한 염원

특징 ·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를 암시함

· '나'의 주관적 체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서술됨

#### 한눈에 보기

고무신짝

불길하게 여겨 다른 사람 집에 던짐

자신의 안위만을 앞세우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속성을 보여 줌

#### 작품 전체 보기

발단	'나'가 사는 마을은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춘, 젊은 샐러리맨 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가끔 귀하는 소리가 들려옴. 어느 날 오는 아침, 흰 고무신짝이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와 아내는 꺼림칙하게 생각함
전개	'나'는 고무신짝을 보면서 어린 시절 밭에 떨어진 지까 다비 한 짝을 보고 공포를 느낀 기억을 떠올림. 밤에 아내는 '나' 모르게 고무신짝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림
절정	열흘 후, 눈이 내린 아침 아내가 다른 집 담 너머로 던졌던 고무신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포감을 느낌. 그러다 '나'는 삶의 균형을 잡아 주었던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림
결말	아내는 다시 고무신짝을 버리러 나가고, '나'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묵인함

수독

# 1 배경의 의미와 기능

이 글에서 아내는 밤새 눈이 온 것을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고, '나'는 그런 아내의 '낭랑한 웃음'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맑고 밝은 분위기는 열흘 전쯤 내다 버렸던 불길한 고무신짝이 담 밑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글에서 '열흘쯤 전의' 일과 관련하여 인물이 한 말은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이라는 아내의 말뿐이다. 또한 고무신짝에 대해 '나'와 '아내'는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가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상실감에 젖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아내는 '나'에 대해 '미심한 느낌'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아내는 액운을 환기하는 듯한 고무신짝을 멀리 내다 버리지 않고 대문 앞 쓰레기통에 버려둔 것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⑤ '나'는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뜰 한가운데에서 기뻐하는 아내를 보며 문득 무언가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 생각을 얼른 지우려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다. 따라서 '나'가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낱알이 되살리려 애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2 소재의 의미와 기능

아내는 불길한 존재인 고무신짝을 다른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렸으나 며칠 뒤 다시 그 고무신짝이 돌아오자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이는 자신만 해가 없으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소시민들의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서술

### 개념 적용하기

본문 065쪽

1 전지적 작가, 가까운 2 ○ 3 ㉠ 4 ㉡

### 태평천하 \_채만식

**해제:** 이 소설은 1930년대 후반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세대 간의 가치관 갈등과 대립, 그로 인한 가족의 붕괴를 그려 낸 작품이다. 지주이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윤 직원 영감의 그릇된 현실 인식과 그 집안의 몰락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당시 사회의 모순과 중산 계층의 부정적인 인물상을 풍자하고 있다. 과장이나 반어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서술자가 경어체를 사용하면서 판소리의 창자처럼 인물과 상황을 조롱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제:** 일제 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과 몰락

- 특징** • 비유, 과장, 반어 등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이를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함
-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는 윤 직원 영감의 비뚤어진 신념을 통해 당시의 현실을 풍자함
  - 서술자가 경어체를 구사하며 판소리 창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한눈에 보기

윤 직원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인물
윤창식	윤 직원의 아들. 개화기 교육을 받았으나, 향락적이고 타락한 인물
윤중수	윤창식의 장남. 방탕한 생활을 하는 한량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

윤중학	윤창식의 차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피검되는 인물로,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임
-----	---

###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인력거를 탄 윤 직원이 그 샅을 깎으려고 인력거꾼과 실랑이를 함
전개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아버지가 구한말에 화적들의 습격으로 죽었던 사연 때문에 일제의 권력과 결탁해 억척같이 돈을 모으려 함
위기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중수도 방탕한 생활로 돈을 날림
절정·결말	마지막 기대었던 손자 중학이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윤 직원 영감은 이런 태평천하에 왜 중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느냐며 울부짖음

수록

1 이 글에서는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작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인물의 심리에 대해 다 알고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작중 상황이나 인물 등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에 대해 아는 바를 상세히 전달하므로,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다.

2 ㉠과 ㉡은 상황과 인물에 대해 서술자가 부연 설명을 하거나, 생각을 직접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로, 이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한다.

### 알아 두기

#### 편집자적 논평

전개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밝혀 서술하는 것으로, 서술자가 독자의 이해나 동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3 윤 직원 영감의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태도에 대해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라고 비꼬는 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에 대해 풍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가가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드러내기도 하지만, 제시된 지문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타락한 윤 직원의 특징을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서술상의 특징

유형 적용하기

본문 068~069쪽

1 ③ 2 ②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3인칭 관찰자 시점 2 억구의 체포 문제로 큰 키의 사내가 겪는 내적 갈등 3 큰 키의 사내가 겪었던 과거 체험에 대한 회상 장면 삽입 4 담 5 인물이 심리적 부담감을 내려놓을 것임을 암시한다. 6 동행

### 동행 전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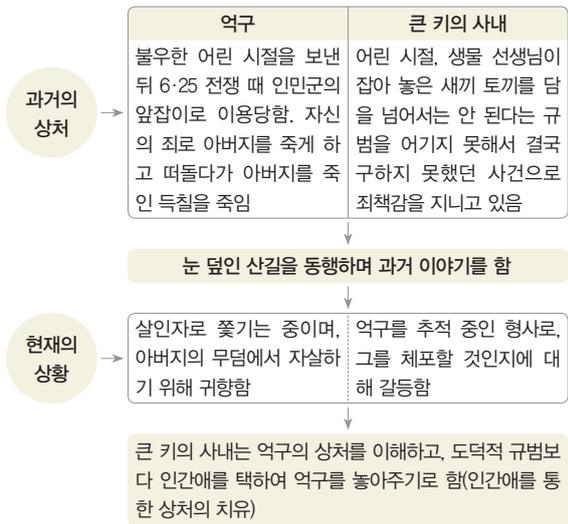
해제: 이 소설은 각기 다른 유년기의 상처를 지닌 두 인물, 즉 살인범과 그를 추적하는 형사가 어느 산골의 눈길을 동행하면서 인간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형사는 살인범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그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다. 형사 또한 규범을 지키려다 생명을 살리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지닌 인물로, 살인범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를 놓아줌으로써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게 된다. 살인범이자 주인공인 억구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살인을 하고 쫓겨 다니는 인물로, 작가는 그를 통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뇌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삶이 6·25 전쟁과 닿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작가는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용서와 화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전쟁의 상흔과 인간애를 통한 치유

특징

-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극적 효과를 높임
-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중간에 과거의 사건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전개함

### 한눈에 보기



### 작품 전체 보기

발단	큰 키의 사내인 형사와 살인자로 쫓기는 억구가 눈 덮인 밤길을 동행하게 됨
전개	초면인 두 사람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함. 큰 키의 사내는 어린 시절 토끼를 구하려고 생물 선생 집의 담을 넘지 못했던 일을, 억구는 전쟁의 와중에 자신을 멀리했던 득수를 처형하고 그 복수로 득수 동생 득칠에게 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한 이야기를 함

유기

억구는 자신의 살인죄를 털어놓으며 아버지의 무덤에서 자살할 것임을 내비침

절정

큰 키의 사내는 도덕의 굴레에 얽매어 담을 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 그 담을 넘기로 결심함

결말

큰 키의 사내는 수감 대신 억구에게 담배를 건네며 하루에 한 개비씩만 피우라고 말하고 담배를 받은 억구는 웃음을 터트림

수독

##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에서는 억구와 큰 키의 사내가 나누는 대화 사이에 큰 키의 사내가 자신이 겪은 과거의 체험을 회상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그의 내적 독백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대화와 내적 고백을 교차하여 서술하면서 큰 키의 사내가 억구를 체포할지 말지 고민하며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상황을 서술하는 문장들 대부분이 '~었다.'의 형태로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은 억구와 큰 키의 사내가 눈길을 걷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억구가 벌인 사건이나 큰 키의 사내가 겪은 사건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억구와 큰 키의 사내가 눈길을 동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윤곽을 드러내지만 그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서로 대비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2 시점 변화의 효과 이해

[A]와 달리 <보기>는 큰 키의 사내가 서술자 '나'로 설정된 1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억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갖게 된 '나'의 느낌,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등 인물의 생각과 심리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액자 구조는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이루어진 서사 구조를 가리키는데, [A]에도 <보기>에도 액자 구조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③ <보기>에 억구와 큰 키의 사내 이외에 새로운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④ [A]와 <보기> 모두 풍자적 어조를 띠고 있지 않다.

⑤ <보기>에서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를 제시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큰 키의 사내가 느끼는 회한이 [A]에 비해 특별히 부각된 것도 아니다.

### 알아 두기

#### 여로형 소설

여로형 소설이란 소설의 내용이 여행의 구조와 같이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데, 등장인물이 특정한 여정을 하며 그 여정 중에 벌어지는 일이 소재가 되어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되는 구조를 보인다. 전상국의 「동행」은 두 인물에 대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채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산길에서 만나 동행을 하게 된다. 인물 간의 갈등은 구둑치고개를 오르는 과정을 따라 점차 상승하다가 고개를 내려오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다. 이 소설은 이런 여로형 구조와 갈등의 과정을 점목시켜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감상

## 개념 적용하기

본문 071쪽

1 × 2 구두 3 반영론적 관점 4 ④ 5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_윤홍길

해제: 이 소설은 성남 택지 개발을 둘러싼 도시 빈민 소요 사건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다녀온 뒤 경찰의 감시를 받는 소시민 권 씨가 자존심과 인간적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추진되던 1970년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폭력성을 고발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달픈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현실 고발

특징 • 상징적인 소재(구두)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표현함

•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서술됨

### 한눈에 보기

권 씨	관찰	'나'(오 선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집 세입자로 선량한 소시민이었으나 시위 주동자로 몰려 도시 빈민이 된 인물</li> <li>• 몰락한 소시민이지만 지식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다 절망을 맞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교사이며 셋방살이 끝에 어렵게 집을 마련한 인물</li> <li>•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안락한 삶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소시민적 의식을 지님</li> </ul>

### 작품 전체 보기

발단	고생 끝에 집을 마련한 '나'는 문간방에 세를 놓음. 임신한 아내와 두 남매를 거느린 세입자 권 씨는 시위 주동자로 몰려 감옥에 다녀온 뒤 전과자 신분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음
전개	권 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공사판 막일을 하면서도 구두는 윤이 나게 닦음. '나'는 권 씨가 전과자가 된 사연을 들음
위기	권 씨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위급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권 씨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올. '나'는 이를 거절했다가 나중에 돈을 구해 권 씨 아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도움
절정	그날 밤 권 씨는 강도가 되어 '나'의 집에 침입하고, 어설픈 강도 행각으로 인해 정체가 탄로 나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감
결말	권 씨는 아홉 켈레의 구두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추고, '나'는 권 씨의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기로 함

1 '나'가 강도의 어설픈 행동과 착한 성품을 보고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눈치챈 것은 맞지만, 권 씨를 자수하게 하려고 설득한 것은 아니다. '나'의 목적은 권 씨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2 구두는 권 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으로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상징한다. 아홉 켈레의 구두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간 것은 소외된 인물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 및 작품과 현실 세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반영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 방법이다.

4 작품을 읽으며 느낀 점이나 감동을 제시한 ④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독자가 얻는 교훈과 감동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은 외재적 관점 중 효용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다.

5 강도질에 실패한 권 씨가 '나'를 향해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라며 자신의 학력을 밝히는 행동은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비록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지만 지식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인간적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작품의 종합적 감상

### 유형 적용하기

본문 074~075쪽

1 ⑤ 2 ⑤

###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압록강 가에는 적군의 시체가 흘러 산같이 쌓였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다. 2 무능력과 무책임함 3 사면초가 4 임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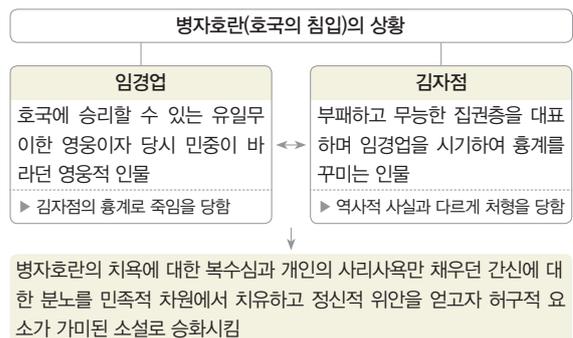
### 임경업전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여 실제로 당시에 전쟁에서 활약했던 명장 임경업의 일대기를 그린 역사 군담 소설이다. 임경업의 일생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임경업의 업적을 변용하거나 과장하는 등의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이를 통해 임경업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고, 병자호란의 국치를 초래한 당시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 임경업의 비극적 일대기와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

특징 •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전쟁 역사 소설임  
• 민중의 호국에 대한 적개심과 조정 간신에 대한 비판이 반영됨

### 한눈에 보기



**작품 전체 보기**

발단	무과에 급제한 임경업이 호국의 요청으로 가달을 물리치고 용맹을 떨침
전개	호국이 임경업을 피해 조선에 침략하여 인조의 항복을 받음. 이후 호왕은 명나라를 치는 일로 조선에 청병을 하고 김자점의 주청으로 임경업이 호국에 파견됨
위기	임경업은 명군과 합세하여 호국을 정벌하고자 했으나 배신자 때문에 호국에 잡힘
절정	위엄과 총의로 호왕을 감복시키고 돌아온 임경업이 김자점에 의해 암살됨
결말	임금이 꿈속에서 임경업의 현신을 보고 김자점을 처형한 뒤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함

수록

**1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이 작품에서 임경업의 능력에 대해 호국과 조선에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호국에서는 임경업에게 크게 패한 일로 분노하여 침공을 준비하지만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고 있고, 조선에서는 임경업이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원해 줄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이 작품이 조선 인조 때 의주에 주둔한 장수 임경업의 생애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지문의 처음 부분에 임경업의 활약상이 그려지고 있다.
  - ② <보기>에서 이 작품이 청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실제 청나라에 무력하게 패한 역사와는 다르게 임경업이라는 영웅적 인물이 호국 진영을 쏙대밭으로 만드는 장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 ③ <보기>에서 좌절된 영웅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 주체는 민중이다. 이는 임경업이 지키는 의주 대신 강화도로 침입한 호국군 때문에 호국에 항복하려는 장면에서 임경업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④ <보기>에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에 조선이 무력하게 패배했고 강력한 실권자였던 김자점 즉, 지배 계층에 대한 분노가 작품에 드러나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지문에서 도원수 김자점이 속수무책으로 호국군에 당하며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2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㉔은 임금이 임경업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길이 막혀 임경업에게 사면초가의 상황을 전할 수 없어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임경업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음을 증명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㉑은 임경업이 이끈 전투의 결과를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는 패배로 끝난 전쟁이었지만 정신적으로나마 위안을 받고자 했던 민중들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㉒에서 임경업은 호국이 침범할지도 모르는 후일을 근심하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 태평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앞날을 내다볼 줄 몰랐던 당시 지배층의 무능함과 임경업의 영웅적 면모를 대비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 ③ ㉓에서 강화 유수 김경정은 술만 마시고 있을 만큼 부패하고, 변변히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호국군에게 당할 만큼 무능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당시 지배층의 무책임함을 보여 주며, 지배층을 향한 민중들의 비판 의식이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㉔은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이 볼모로 잡힌 역사적 사실을 소설로 형상화한 장면이다.

**수필 / 극**

**개념 적용하기**

본문 077쪽

- 1 무소유 2 ○ 3 ③ 4 난초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음 5 ③

**무소유\_범정**

해제: 이 작품은 난초를 키웠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깨달은 무소유의 참된 의미를 고백적 어조로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선물로 받은 난초를 ‘그 애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난초에 대해 지극한 정성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뜨거운 햇볕에 놓아 둔 난초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부자유롭게 되자, 집착이 괴로움을 준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듯 이 작품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므로써 오히려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전하며 글쓴이의 무소유에 대한 가치관을 되새기게 한다.

- 주제: 참된 자유와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무소유의 삶  
 특징: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유의 본질에 대해 성찰함  
 • 자기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독자와의 친밀감을 높임

**한눈에 보기**



**작품 전체 보기**

처음	「간디 어록」의 내용을 소개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이 너무 많음을 반성함
중간	난초에 집착하면서 괴로움을 느꼈던 경험을 고백함
끝	무소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음

수록

- 이 글은 난초를 키웠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깨달은 무소유의 참된 의미를 고백적 어조로 쓴 수필이다.
- 글쓴이는 소유는 인간을 구속한다고 보며, 소유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을 빚은 인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 글쓴이는 난초를 ‘그 애들’이라고 의인화하여 부르며 정성을 다해 보살피느라 외출을 할 때에도 여러 번 돌아온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외출할 때 친구에게 난초를 부탁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 글쓴이는 난초를 지극정성으로 길렀으나 뜨거운 햇볕에 놓아 둔 난초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지 않게 되자, 집착이 괴로움을 준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 글쓴이는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유욕을 버리면 해방감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터득했다고 하였다.

## 수필 - 글쓰이의 관점 및 태도

유형 적용하기

본문 080~081쪽

1 ③ 2 ⑤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구부러져 있는 나무 2 나무는 곧게 자라는 것이 본성이지만 쓸모 있는 재목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3 물욕, 이해관계 4 나무는 그 속성이 곧을 수도 있고 굽을 수도 있다. 5 비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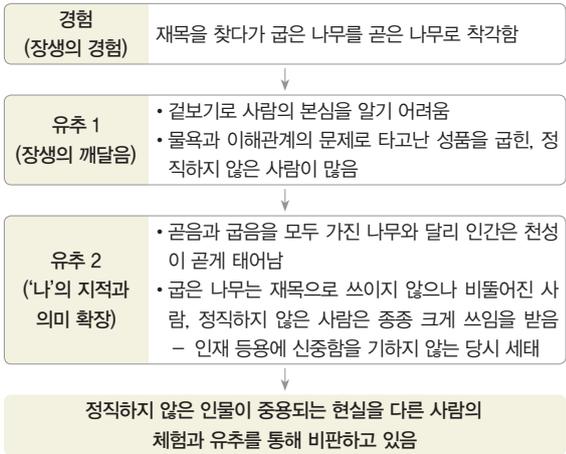
### 꼭꼭설 장유

해제: 이 작품은 인간의 품성을 굽은 나무에 비유하여 깨달은 바를 적은 교훈적인 내용의 한문 수필이다. 굽은 나무를 곧은 나무인 것처럼 착각한 장생이라는 사람의 체험을 통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 물욕과 이해관계가 사람의 참된 성품을 혼탁하게 만든다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중용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양한 비유와 유추의 방식,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인간의 물욕과 이해관계에 대한 경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등용되는 현실 비판

특징 • 인간의 품성을 굽은 나무에 비유하여 제시함  
• 인물의 개인적 체험과 사회적 현상을 관련지어 서술함

### 한눈에 보기



### 작품 전체 보기

장생의 말	경험	집을 짓기 위한 재목을 구하려 산에 갔지만 굽은 나무만 많이 보여 탄식함
	생각	좋은 재목을 고르는 어려움과 타고난 천성이 곧은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이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음
‘나의 말		현재 조정에서 정직한 사람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부정직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실의 인재 등용을 비판함

## 1 대상에 대한 두 인물의 관점을 파악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나’는 나무의 속성에는 곧음과 구부러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며 정직하지 않은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은 일종의 요행이라고 보고 있다. 즉 ‘나’는 곧음과 구부러짐의 속성을 모두 가진 나무와는 달리, 인간의 천성은 오직 정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대상에 대한 두 인물의 관점을 비교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장생과 ‘나’는 구부러진 나무는 재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현실을 비판하며 그들이 인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에는 장생의 견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장생은 나무가 자랄 때 쪽쪽 뺏어 곧게 자라야 함이 마땅하지만 쓸모 있는 재목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현실에서 곧은 인간을 찾기는 더 어렵다고 개탄하고 있다.

③, ④ ㉡에는 ‘나’의 견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장생은 나무의 본성은 곧게 자라는 것이라 보고 있고, ‘나’는 나무의 속성은 구부러질 수도 있고 곧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나’는 목수에게 굽은 나무는 쓰이지 않는 것과 달리 인간사에는 굽은 사람이 오히려 높은 벼슬을 얻는 세태를 지적하며 인재 등용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있다.

## 극 - 형상화 방식

유형 적용하기

본문 084~085쪽

1 ② 2 ⑤

개념으로 지문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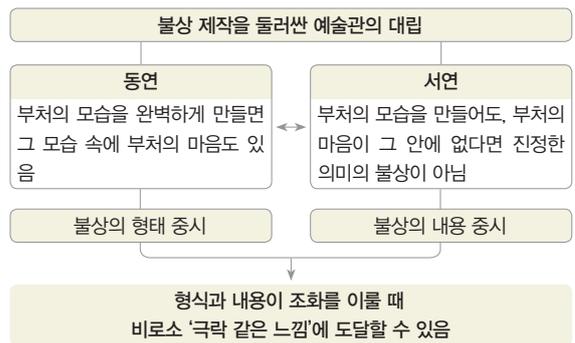
1 동연과 서연, 불상 제작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2 무대 한가운데 천막을 펼쳐 놓고 한쪽은 장례식, 다른 한쪽은 함모진의 집으로 나타내었다. 3 예술관 4 분리, 조명 변화

### 느낌, 극락 같은 \_이강백

해제: 이 작품은 불상 제작에서 형태와 내용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보여주는 희곡이다. 부처의 모습(형식)을 중요시하는 동연과, 부처의 마음(내용)을 중요시하는 서연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함모진과 그의 딸인 함이정, 함이정의 아들인 조승인에 걸친 3대의 인물이 동연, 서연과 얽혀 다양한 사건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형식과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하지 않으며, 이 두 요소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예술적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  
특징 •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예술의 본질적 가치관을 제시함  
•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이 공존하는 형태로 극이 전개됨

### 한눈에 보기



**작품 전체 보기**

서연의 장례식장에서 함이정과 그녀의 아들 조승인이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 회상이 시작된다.

불상 제작자 함요진의 제자인 동연과 서연은 불상 제작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을 겪고, 서연은 진정한 부처의 마음을 찾아가 떠난다.

동연은 불상 제작자로 명성을 얻고 함이정과 결혼하여 아들 조승인을 얻는다. 이후 함요진이 세상을 떠나자 함이정은 서연을 찾아가간다.

조승인은 아버지의 업을 잇기를 거부하고 작곡가로서 정신적 아버지인 서연과 생부의 불협화음을 조화시켜 보기로 결심한다.

함이정과 서연은 떠돌며 부처를 만들고 함이정은 서연의 임종을 지키게 된다. 동연이 서연의 죽음 소식을 조승인에게 알리며 장례식에 가 보라고 한다.

수독

수독

**1 무대 상연의 형상화 방식을 파악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상복을 입고 무대 밖으로 퇴장한 함이정과 그의 아들 조승인이 ①에서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고선 다시 무대 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함이정의 처녀 시절, 동연과 서연의 갈등을 자세히 보여 주고자 과거 장면으로 돌아간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의상을 교체함으로써 장면이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①에서 한가운데 있던 천막이 무대 위 천막으로 올라가며 장례식장에서 함요진의 집으로 공간이 이동되었다. 그러므로 동일한 무대 안에서 천막이라는 무대 장치를 통해 장례식장과 함요진의 집 공간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③에서는 조명을 통해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후 장면에서 개울물은 이쪽(이 세상)과 저쪽(저 세상)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④는 조명 변화를 통해 개울물에 주목하게 하고 있을 뿐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④ ④에 이어 함요진이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가는 행동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④는 등장인물이 무대 안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⑤에서는 함요진이 휠체어 바퀴를 다급하게 굴리는 행동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⑤가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파악한 극의 형상화 방식의 적절성 평가**

조승인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하며 작곡을 하고 있는데, 이 연주는 무대 밖이 아닌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통극에서는 일반적으로 효과음을 무대 밖에서 활용하였지만 이 작품에서는 효과음까지도 정통극과는 다르게 무대 안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아노 연주라는 효과음이 무대 밖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무대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장례식장에서 함요진의 집으로 공간이 이동됨을 알 수 있다.

② 상복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이 퇴장하며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과 같은 소품을 직접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가고 있고, 밝은 색 옷으로 의상을 바꿔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이 무대 안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를 통해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조승인과 함요진은 동일한 무대 안에 있지만 함요진이나 동연, 서연과 같은 과거 속 장면의 인물들은 조승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무대에 있는 등장인물끼리도 소통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조명을 통해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는 보통 최대한 현실과 동일하게 무대 장치를 구현하는 정통극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전 01 현대 소설**

본문 086~088쪽

1 ① 2 ④ 3 ⑤ 4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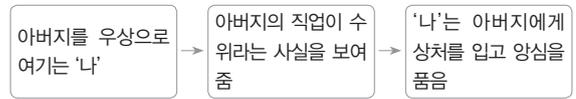
**배반의 여름 \_박완서**

해제: 이 소설은 한 소년이 유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겪는 정신적 성숙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제목인 '배반의 여름'에서 '여름'은 모든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인 여름을 인간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대응시킨 것이며, '배반'은 아버지를 통해 겪는 세 가지 배반 사건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상처를 통한 정신적 성숙을 의미한다. '우상 → 배반 → 성장'의 구조가 반복되며, 누이의 죽음, 아버지의 사무실 방문, 사회적 명사인 '전구라'의 실체 확인 등을 통해 자신과 가족, 사회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어린 소년인 '나'는 정신적 성숙을 경험한다.

주제: 우상들의 배반을 통한 성장기 소년의 자아 성장

특징: 인물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극적 반전을 일으켜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킴

**한눈에 보기**



**작품 전체 보기**

발단	'나'가 일곱 살 되던 해 누이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다. 이 일이 있은 후 엄마는 '나'에게 수영을 배울 것을 강요하지만 '나'는 두려움에 수영 배우기를 단념한다.
전개	아버지는 '나'에게 수영을 시키고자 억지로 '나'를 풀장으로 밀어 넣고, '나'는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 일로 '나'는 수영을 배울 용기가 생기게 되고 아버지에게 대한 앙심도 저절로 풀리게 된다.
위기	국민학교 시절 '나'의 우상은 아버지였다. 어느 여름날 '나'는 아버지가 별것 아닌 사람들에게 굽실거려야 하는 수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두 번째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실망감과 배신감은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절정	고등학교 시절 '나'는 우상을 아버지 대신 전구라 선생으로 바꾼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전구라의 위신을 날탈이 들려주고, '나'는 더욱더 고독해진다.
결말	'나'는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정한 늠름함을 키워 나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수독

**1 사건의 전개 양상**

'나'는 집에서의 아버지를 '뛰어나게 훌륭한 인격'을 지닌 분이라며 우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장에 따라가게 되면서, 아버지가 별것 아닌 사람들에게 굽실거려야 하는 수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나'는 '나의 우상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낀다.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면서 '나'는 아버지와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아버지와 '나'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짐을 나타낸다.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아버지와 '나'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지다가 다시 멀어짐을 나타낸다.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아버지와 '나'의 심리적 거리감이 계속적으로 바뀜을 나타낸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 2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제시된 장면에서 '나'는 '그때도 여름이었다.'라고 하여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직장에 갔던 일을 회상하며, 당시 벌었던 일과 그에 대한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과거 회상을 통해 아버지의 직장에 따라갔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회상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함이지 내화에 사실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 ③ '나'가 겪은 사건과 이에 대한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건을 주로 묘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3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이 글의 아버지는 '나'가 아버지의 직업을 알고 실망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별안간 낱깍'대고 있으며, '나'는 이런 아버지의 웃음을 '나의 우상이 깨지는 소리'로 듣게 된다. 제시된 장면에서 아버지가 부끄러워하거나 자식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아버지같이 뛰어난게 훌륭한 인격'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자식들은 아버지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나'가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간 내용을 통해 아버지의 직업이 수위임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의 1연에서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괴로움을 달래고 있다.
  - ③ 이 글에서 아버지는 '나'를 직장으로 데려가 자신의 직업이 수위임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보기>의 3연에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어린 것들이 간직한 깨끗한 피로 때가 씻김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식들을 보며 노동의 힘듦을 잊는 것을 의미한다.

### 알아 두기

#### 아버지의 마음 \_ 김현승

- **해제:** 이 시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아버지라는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으로, 말없이 사랑과 근심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주제:**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외로움

##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의 내용을 통해 '나'는 결국 아버지에 의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아버지는 ㉠처럼 현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보여 줌으로써, '나'가 환상을 깨고 실존하는 사회 현실을 인식하게 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직장으로 데려간 행위를, 외적 세계보다 내적 세계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이 글과 <보기>를 통해 '나'는 아버지라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 진정한 능률함과 남이다움을 얻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남이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보기>에서 '나'는 진정한 능률함과 남이다움을 말하고 있으므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 ⑤ <보기>로 보아, '나'가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이를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실전 02 고전 소설

본문 089~0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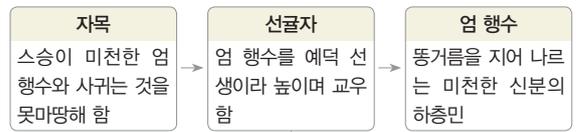
1 ㉠ 2 ㉠ 3 ㉢ 4 ㉠

### 예덕선생전 \_ 박지원

**해제:** 이 소설은 분수를 알고 직분에 충실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엄행수라는 하층민의 삶을 조명하고, 그의 덕을 언급함으로써 신분이 인간의 덕성을 가리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엄행수와 교유하는 선굴자를 제자 자목이 비판하자 선굴자는 이해(利害)로 사귀는 것과 야점으로 사귀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며, 진정한 사귀는 마음으로 사귀고 덕으로 베푸는 도의의 사귀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분수에 맞는 삶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분이 인간성마저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엄행수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형 및 교유의 도 제시  
**특징:**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함

### 한눈에 보기



진실된 마음으로 교유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우도(友道)를 제시함

###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선굴자에게는 예덕 선생이라는 벼이 있었는데, 그는 분노를 나르는 역부의 우두머리 엄행수이다. 선굴자의 제자 자목은 사대부와 교유하지 않고 비천한 엄행수를 벗하는 스승에게 불만의 뜻을 표시한다.
전개	이에 선굴자는 이해(利害)와 야점의 사귀는 오래 갈 수 없기에 마음으로 사귀고 덕을 베푸는 도의의 사귀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절정	선굴자는 엄행수는 어리석은 듯 보이고 비천한 일을 하지만, 그는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고 남에게서 욕먹는 일이 없는 근면 성실한 사람이라 말한다.
결말	선굴자는 엄행수가 하는 일은 불결하지만 그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그가 처한 곳은 더러우나 의를 지키는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엄행수야말로 진정한 군자이므로 예덕 선생이라 부르며 도의의 교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수문

## 1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 선굴자는 똥을 짚어 나르는 엄행수의 행적을 제시하면서 제자 자목에게 진정한 벼를 사귀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상징적인 배경 묘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스승인 선굴자와 제자 자목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선굴자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 이야기의 대상인 엄행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선굴자는 자목이 갖고 있는 직업과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 주고 있다.
  - ⑤ '밥을 자실 때에는 꿀떡꿀떡, 걸어 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에는 쿵쿨, 웃음을 웃을 때에는 허허' 등의 음성 상징어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등의 행동 묘사를 통해 엄행수의 가식 없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선글자는 벗의 사귀에 있어서 신분의 천함과 귀함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덕성을 보아 사귀고 있다. ④도 나이나 존귀함 등의 신분보다는 덕성이 있는 사람과 사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가장 유사하다.

- 오답 풀이** ① 자목이 선글자가 엄 행수와 사귀는 것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선글자가 말하는 올바른 벗 사귀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상대의 처지에 따라 변치 않는 우정의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선글자가 말하는 벗 사귀의 태도와 다르다.  
 ③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며 쫓는 자는 진정한 벗이 아니며 학문이나 경학이 우수한 자를 벗 삼으라는 내용으로, 이는 선글자가 말하는 벗 사귀의 태도와 다르다.  
 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벗으로 사귀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는 선글자가 말하는 벗 사귀의 태도와 다르다.

## 3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선글자는 엄 행수가 제 분수를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엄 행수의 안분지족한 삶의 태도를 본받을 만하다고 여기며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 엄 행수가 선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엄 행수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선글자에게 감사해 한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자목의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의 하는 일이나 하인놈의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라는 말을 통해 선글자와 자목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②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자목은 스승인 선글자가 상일을 하는 천한 엄 행수를 벗하는 것이 부끄러워 문하를 떠난다고 말하였으므로, 자목이 선글자와 엄 행수의 친분 관계를 모마땅해함을 알 수 있다.  
 ④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자목이 엄 행수가 하는 일을 상일이라고 하여 천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선글자는 엄 행수가 미천한 일을 하면서도 분수를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엄 행수의 안분지족한 삶의 태도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4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선글자는 엄 행수에 대해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그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의 이유는 엄 행수가 가장 미천한 일을 하면서도 욕심이 없고 의리를 지키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선글자의 벗 사귀의 태도는 나타나고 있으나, 엄 행수가 사람을 사귀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엄 행수가 사람을 사귀는 도를 지키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엄 행수는 자신의 미천한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선글자의 말에 ‘엄 행수의 이런 마음을 더 키워 나간다면 성인(聖人)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엄 행수가 앞으로 성인이 될 수 있는 태도와 성품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엄 행수가 성인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실전 03 극

본문 092~095쪽

1 ① 2 ④ 3 ④ 4 ③ 5 ③

### 산본 \_차범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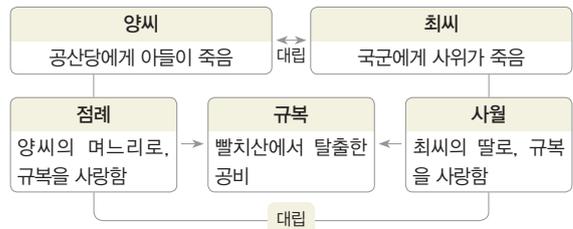
**해제:** 이 희곡은 1951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소백산맥 줄기에 위치한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에 의해 민중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잔혹하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전쟁의 한 단면을 인간의 원초적인 애욕과 관련시켜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비극적 결말을 통해 전쟁의 잔인함과 이념의 허상, 인간 본능의 허망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전쟁에 의해 파괴되는 민중의 삶

**특징** • 사실주의 희곡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 줌

- 민족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객관적 시각으로 드러냄
-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갈등과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 의한 갈등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보여 주어 전쟁의 폭압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냄

### 한눈에 보기



### 작품 전체 보기

<b>발단</b>	소백산맥 줄기에 위치한 마을에는 젊은 남자들이 6·25 전쟁으로 죽거나 끌려가고 없어 김 노인과 젓먹이 아기를 빼고는 여인들만 살고 있다.
<b>전개 1</b>	양씨는 아들이 반동으로 몰려 도망 중으로 며느리인 점례와 살고 있다. 양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건어 산속에 숨어 사는 자위대에게 가져다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최씨는 사위가 빨갱이로 몰려 죽었기 때문에 딸 사월과 살고 있다. 서로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양씨와 최씨는 갈등을 겪게 되며, 이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양씨나 최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b>전개 2</b>	어느 날 빨치산을 탈출하여 마을로 내려온 공비 규복은 산속에서 크게 다치고 우연히 만난 점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한다. 점례는 규복을 대밭에 숨겨 주고 밥을 몰래 가져다주면서 사랑이 싹 터 정을 나누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월은 점례에게 규복을 함께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결국 사월도 규복과 정을 나누게 된다.
<b>절정</b>	마을을 장악한 국군이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월과 점례는 규복을 걱정한다. 얼마 후 국군은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생계인 대밭에 불을 지르고 대밭에 숨어 있던 규복은 도망가다 결국은 국군의 총에 맞고 불에 타 죽는다.
<b>대단원</b>	규복이 죽은 것을 알고 사월은 양젓물을 먹고 자살하고, 최씨는 딸의 죽음에 통곡한다. 점례는 죽은 규복의 시체를 수습한다.

수록

##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6·25 전쟁 중 이데올로기로 인한 최씨와 양씨의 갈등, 규복을 사이에 둔 점례와 사월의 갈등 관계가 대화와 지시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독백은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것으로, 이 장면에서는 이러한 독백보다는 갈등 관계에 놓인 인물들 간의 대화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제시된 장면에서는 인물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짧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간결한 대화는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는 기능을 한다.

③ '입가에 조소를 띄우며', '대들면서', '불쾌감을 억지로 누르며', '분함을 억제하며' 등과 같은 지시문을 이용하여 인물의 태도를 말과 행동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④ '칠산 바다에 찍한다더니……. 원…….', '자위대에서 시키는 일이니 까…….' 등과 같은 대사에 말줄임표를 넣어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공비', '반동', '빨갱이' 같은 단어는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 즈음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이렇게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을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하면 작품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 2 형상화 방식

사월과 점례는 국군이 산에 불을 지른다는 소문에 산에 숨어 있는 규복을 걱정한다. 점례가 규복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사월에게 탓하자, 이에 사월은 '매섭게' 대응한다. 이로 보아 사월이 규복을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점례에게 미안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④의 연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점례가 사월에게 '그렇지, 그래 사월이가 나를 눈감아 줬던들 우리 두 사람은 자수를 해서 멀리 타관으로 떠났을지도 몰라. 그런데 사월이가 한사코…….'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점례가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인물들 간의 대화 중에 '천왕봉', '산불' 등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공간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③ '입가에 조소를 띄우며', '바웃는다', '비꼬며' 등의 지시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씨는 양씨에게 빈정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점례와 사월은 규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갈등하며, 현재의 상황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따라서 무거운 느낌의 배경 음악을 삽입하면 갈등의 분위기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작품의 결말에서 규복은 불에 타 죽고, 사월은 양젓물을 먹고 자살한다. 그리고 점례는 '모든 것은 재로 돌아가 버렸으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민중과는 관련 없이 일어난 전쟁(거대한 힘)에 의해 파멸된 개인의 비극적인 삶을 드러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점례는 사월에게 '천왕봉에 숨어 있는 빨갱이들을 깡그리 없애 버리기 위해서 산에 불을 놓는다는 소문도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기>에서 규복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하였으므로 사건의 형세가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사월이 양젓물을 먹고 죽음을 택한 이유는 규복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며 이는 전쟁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보여 줄 뿐, 사월의 죽음으로 도덕적 교훈을 주려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비극적인 상황에서 '밥은 아직 멀었냐? 오늘은 귀가 터진 것 같구네!'라고 말하는 김 노인은 희극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복이 죽고 사

월이 자살한 장면에서 이와 같은 희극적인 인물이 등장한 것은 오히려 비극적인 상황을 더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⑤ 쌀레네와 부녀 갑은 사월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점례는 규복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무관심을 통해 인간 소외 현상을 비판하고자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4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이 글에서 최씨는 '내 사위를 빨갱이로 몰아 죽인 놈들은 모두 원수야! 내 딸 사월이를 청상과부로 만든 놈을 왜 내가 가만둬!'라고 하면서 사위를 빨갱이로 몰아 자신의 딸을 과부로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국군 아들을 둔 외할머니와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가 갈등을 겪지만, 구렁이 사건을 계기로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고통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따라서 <보기>의 외할머니는 최씨에게 서로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감싸 안으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외할머니가 최씨에게 딸을 위해 격정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는 '구렁이'를 삼춘의 현신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글에서 규복을 죽은 사위의 현신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보기>는 좌익과 우익의 이념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분명한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적대하지 말라는 조언은 <보기>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⑤ <보기>의 외할머니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거나 친할머니의 사정을 생각해 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씨를 잘 따라 곤란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 알아 두기

#### 장마 \_윤홍길

• **해제:** 이 소설은 6·25 전쟁 중에 한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린 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회상하고 있는 전후 소설이다. 두 할머니의 대립과 갈등, 화해의 과정을 통해 분단 현실의 비극과 그 극복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주제:**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보편 정서를 통한 화해

## 5 사건의 전개 양상

[B]에서 최씨는 양씨의 사위가 반동이였기 때문에 도망을 갔다가 인민군에게 붙들려 죽은 일을 언급하고, 이로 인해 양씨의 딸인 점례가 최씨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C]에서 점례와 사월이 대립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규복이라는 한 사내를 두고 둘이 동시에 연정을 품었기 때문이므로 [B]의 갈등과 [C]의 갈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① 양씨와 최씨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데, 그 이면에는 아들과 사위의 이념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② 점례가 양씨와 최씨의 싸움을 말리자 최씨는 점례의 남편을 들먹이고 이로 인해 점례와 최씨가 갈등을 하게 된다.

④ 점례와 사월은 규복과의 애정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⑤ [A]와 [B]의 갈등을 통해 점례의 남편과 최씨의 사위가 전쟁 중에 이념 문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점례와 사월은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공비인 규복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게 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 ③ 2 ④ 3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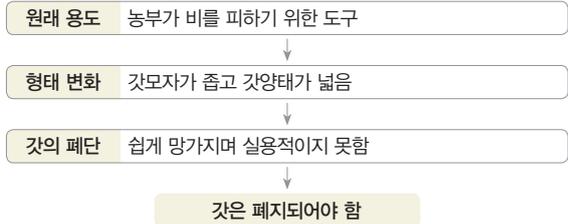
**갓에 대하여 \_이덕무**

해제: 이 수필은 갓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논하고 있는 글로, 갓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열거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갓의 형태가 갓의 여러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라고 밝히며, 원래는 실용적이었던 갓이 후대에 오면서 권위적인 형태로 바뀐 것에 대해 비판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갓의 폐단에 대한 비판

특징 ·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남

**한눈에 보기**



**작품 전체 보기**

기(起)	갓의 풍습과 갓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반박함
서(敍)	쓰기에 불편한 갓을 폐지하고, 실용적인 관건이나 소립을 만들어 써야 함
결(結)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갓의 폐단을 열거함

**1**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보기〉는 권력자들의 가혹한 수탈을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에 비유하여 당대 현실을 비판한 노래이며, 이 글은 갓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갓의 폐지를 주장하는 글로 권위적인 갓의 형태를 고집하는 현실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화자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애정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보기〉는 권력자들이 농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수확물을 무자비하게 수탈하고 착취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고, 이 글은 실용적이지 못한 갓의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자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의 경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지만 〈보기〉의 경우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만 그치고 있다.
  - ⑤ 이 글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기〉의 경우도 권력자들이 착취하는 현실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알아 두기**

**사리화 \_이제현**

· **해제:** 이 시가는 이제현의 '소악부(小樂府)' 11수 중 하나로 당시 민간에서 유행하던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백성들의 위정자에 대한 원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사회 비판적인 노래로 당시 농민들의 궁핍한 생활과 관리들의 타락된 일면이 잘 풍자되어 있다. 이 시가에서 '늪은 흠아비'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의미하며, 늪

은 흠아비가 홀로 갈고 맨 벼와 기장을 빼앗아 가는 '참새'는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 권력자들의 농민 수탈에 대한 비판과 고발, 가혹한 수탈로 인한 농민의 피폐한 삶

**2** 서술상의 특징

'갓이 너무 크면 항우(項羽)라도 쭈그러 들고, 갓이 파손되면 학자도 당황한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갓의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ㄱ). 또한 갓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갓의 폐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갓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 비바람이 불어질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갓의 제작이 허술하다는 것 등)를 들어 주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ㄴ),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일절 금하고 별도로 관건(冠巾)을 만들어 반포하되 등급의 차별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갓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설득력을 얻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ㄷ. 글쓴이는 '기차'와 '이익'의 견해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싸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큰 갓과 긴 소매의 옷을 지어 입힌다고 한 기차의 말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허황한 말이라고 하였고, 갓이 옛 고깔의 남겨진 모양이라고 한 갓의 유래에 대해서도 고깔과 갓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 말하는 갓의 폐단은 조그만 배 안에서 갓양태의 끝이 남의 이마를 찌르고, 좁은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에는 양태 끝에 남의 눈을 다치게 하고, 들에 가다가 풍우를 만나게 되면 갓모자는 좁고 갓양태는 넓어 바람에 갓이 위로 말려 올라간다고 하며 갓의 폐단을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갓의 폐단을 들어 갓을 없애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관건이나 소립을 착용하자고 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이용후생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갓의 제도가 실용적이지 못한 면을 들고 있으므로 경제 제민(세상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이나 공맹의 도덕 세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이용후생(백성이 사용하는 기구 등을 편리하게 하고 의식을 넉넉하게 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함)과 관련된 내용이다.
  - ③ 실학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하지만 이 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글에 드러난 현실은 실학파가 추구하는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맞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 그 괴리감으로 인한 고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알아 두기**

**실학사상**

17세기 중엽 이후 성리학의 공리공론에 반대하여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조선의 변화를 꾀하려던 사상을 말한다. 실학 대두의 내적 요인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한 민생을 구제하고 사회 현상을 타개하자는 데 있었다.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는 당시 청조에서 발달한 고증학과 서학 등의 영향을 받아 실용성과 실증성을 지닌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학사상이 사회 개혁의 방법론과 학문 연구의 목표로 발전한 것은 영조·정조 시기를 전후한 17세기~19세기 중엽까지이다.

### III 독서

#### 사실적 독해

##### 개념 적용하기

본문 101쪽

1 다이내믹 스피커 2 (1) 진동수 (2) 보이스 코일 3 (1) ○ (2) ○ (3) × 4 ①

##### 스피커 총론 \_오세진

해제: 이 글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재생하는 스피커의 기본 원리를 제시한 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이내믹 스피커의 구조와 소리 재생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다이내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은 영구 자석, 탐 플레이트, 보이스 코일, 보빈, 진동판, 댐퍼, 폴피스 등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자기장과 전류가 상호 작용하게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힘을 진동판에 전달하여 소리를 재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다이내믹 스피커가 소리를 재생시키는 원리는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을 이룰 때 생성되는 힘이 자기장과 전류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활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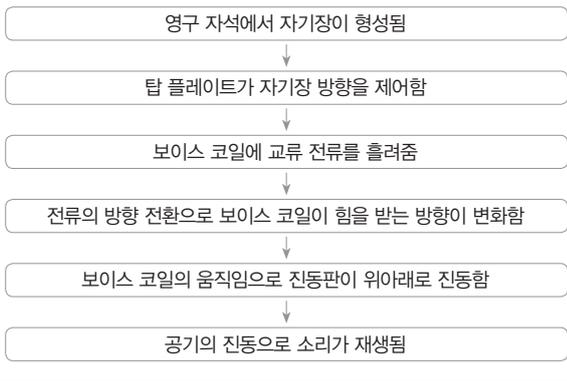
주제: 다이내믹 스피커의 구조와 작동 원리

특징 • 대상의 구조와 원리를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여 설명함  
• 중심 화제의 바탕이 되는 과학적 원리를 그림과 함께 제시함

구성

1문단	진동을 이용한 스피커의 원리
2문단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이내믹 스피커의 기본 원리
3문단	다이내믹 스피커의 구성 요소별 기능
4문단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소리가 재생되는 과정
5문단	전류의 세기와 소리의 크기 간의 관계

##### 한눈에 보기



1 이 글은 전체적으로 다이내믹 스피커의 구조와 소리 재생 원리에 대한 설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2문단 첫 부분에서 소개한 '다이내믹 스피커'가 중심 화제라고 할 수 있다.

2 (1) 1문단에 '공기가 가죽의 진동을 받아 생기는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작으면 낮은 음이 난다.'라는 내용이 있다.  
(2) 3문단에 댐퍼가 '스피커의 외형을 이루는 단단한 프레임에

보빈을 지지시켜 보빈에 감겨 있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이스 코일의 중심을 잡아 준다.'라는 내용이 있다.

3 (1) 북을 쳤을 때 북의 가죽과 공기가 진동하여 소리를 낸다는 사례를 들어, 그와 유사한 스피커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 영구 자석, 탐 플레이트, 보이스 코일, 보빈, 진동판, 댐퍼, 폴피스와 같은 주요 부품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열거하고 있다.

(3) 4문단의 내용은 다이내믹 스피커의 장단점을 소개한 것이 아니며,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4 4문단에서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이 이전과 반대 방향이 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영구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한데 교류 전류로 전류의 방향이 변화한다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검지가 가리키는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한데 중지가 가리키는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바뀌는 상황이 되면 엄지가 가리키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 정보의 확인

##### 유형 적용하기

본문 104~105쪽

1 ⑤ 2 ⑤

#####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여러 규칙 중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강제성을 가진 규칙 2 민법과 형법 3 민법 4 죄형법정주의 5 피해자, 제3자 6 법에서는 생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간이 아닌 것은 모두 물건으로 보는데, 물건은 법적 권리가 없어 의무와 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 청소년의 법과 생활 \_범무부

해제: 이 글은 법의 제정 목적과 특징, 민법과 형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집단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법은 강제성을 지닌다. 또한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법은 민법과 형법을 들 수 있는데, 민법은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를,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 민법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지배를 인정한다는 원칙,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등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20세기 들어 수정된 원칙들도 생겨났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지니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형 선고와 집행 등이 이루어진다. 한편, 동물이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동물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민법에 따라 점유자에게 배상을 물게 할 수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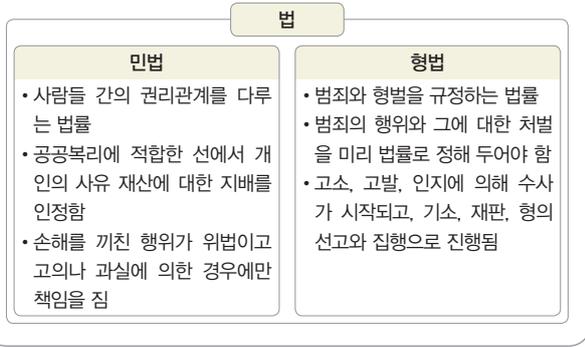
주제: 민법과 형법의 원칙 및 집행 절차

- 특징
-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이해를 도움
  - 민법과 형법의 특성을 대비하여 설명함

구성

1문단	법의 제정 목적과 특징
2문단	민법의 개념과 원칙
3문단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4문단	형법의 적용 및 집행 절차
5문단	동물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 한눈에 보기



## 1 세부 정보를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2문단에 의하면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민법의 원칙은 근대 사회에서 형성되었는데, 중요 원칙 중 하나가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 행사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유 재산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지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지문의 내용에 맞지 않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에 따르면, 형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인지가 있는데,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2문단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20세기 들어 민법의 원칙들에 제한이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지배는 여전히 보장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3문단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민법과 달리 형법은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것이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민법의 중요 원칙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민법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2 특정 대상의 세부 정보를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1문단에는 법의 강제성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발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목적이 공익과 무관할 경우에는 강제성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의하면, 인간의 집단생활에서 불가피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강제성을 지니는 것이 법이라고 하였다.

② 1문단의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 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둘러 수 있을 것이다.'를 보면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 의하면,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사람들은 숨이 막혀 평온하게 살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고 하였다.

④ 1문단의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전개 방식 파악

유형 적용하기

본문 108~109쪽

1 ① 2 ②

• 개념으로 지문 읽기

- 1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이론의 발전 2 리카도가 차액지대론에서 말하는 지대의 발생 이유 3 잉여, 불로소득, 대가 4 한계생산이론, 재해석

### 토지 경제학 \_이정전

해제: 이 글은 지대를 잉여로 보았던 고전경제학과 리카도의 차액지대론과, 지대를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보았던 초기 신고전경제학과 클라크의 한계생산이론의 대립적인 논의가 마셜의 이론 안으로 수용되는 논의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마셜이 기존의 지대론을 정교화하고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지대론과 현대 지대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의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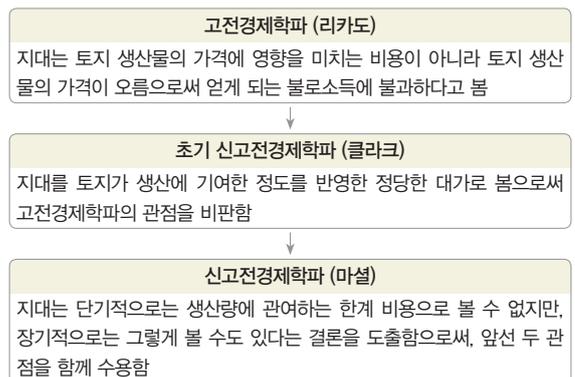
주제: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

- 특징
- 특정 분야의 대립되는 이론들이 절충되어 나타나는 과정을 밝힘
  - 구체적인 사례를 상정하여 이해를 도움

구성

1문단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소개
2문단	지대 발생의 이유에 대한 리카도의 관점
3문단	지대의 가치를 높게 본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
4문단	고전경제학파의 관점과 초기 신고전경제학의 관점을 수용한 마셜의 지대론
5문단	마셜의 지대론이 지닌 의의

### 한눈에 보기



# 1 글 전체의 전개 방식을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이 글은 지대의 성격을 달리 보는 두 이론, 즉 지대를 잉어로 보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과, 지대를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보는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이 그 후속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셜의 이론으로 수용되는 논의의 흐름을 설명하고, 마셜의 이론이 이전까지의 지대론과 현대 지대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차액지대론을 설명한 부분에서 지대의 결정 원리를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현실에서 실제로 지대가 결정되는 사례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지대의 개념을 다른 생산 요소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밝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대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④ 지대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다루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변천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을 분석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경우 지대를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로 보았으므로 지대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2 개별 문단의 전개 방식을 설명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A]는 '가령, 어떤 나라의 A, B, C 지역에 쌀 생산에만 쓰이는 토지가 있는데 그 비옥도에 차이가 있어 각 지역 토지에서의 쌀 한 가마당 생산비가 5만 원, 6만 원, 8만 원이라고 하자.'라며 구체적으로 상황을 가정하고 차액지대론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 B, C 지역의 사례는 차액지대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실제 사례가 아니다.

③ [A]에서 순차적으로 제시된 것은 가설이 제기된 과정이 아니라 쌀 수요량 증가에 따른 경작지 확장과 그에 따른 지대의 발생 및 변화 과정이며, 역사적 배경을 밝힌 것도 아니다.

④ [A]에서는 차액지대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예를 들고 있을 뿐,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를 제시하여 차액지대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A]에는 상반된 관점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차액지대론의 타당성 판단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 추론적 독해

개념 적용하기

본문 11쪽

1 ○ 2 ○ 3 × 4 단안 단서 5 3차원 6 ③

### 입체 지각

**해제:** 이 글은 사람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단안 단서를 설명하고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는 정보를 말한다. 입체 지각이란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한 눈으로 얻는 정보는 2차원이지만, '시각(視覺)의 차이, 직선 원근, 결 기울기, 운동 시차' 등을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주제:** 단안 단서에 의한 입체 지각의 방법

**특징** • 질문의 형식으로 글을 시작하여 흥미를 유발함  
• 개념을 정의,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음

**구성**

1문단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의 개념
2문단	단안 단서의 종류 ① - 물체의 상대적 크기, 직선 원근, 결 기울기
3문단	단안 단서의 종류 ② - 운동 시차
4문단	단안 단서(운동 시차)를 활용한 동물들의 입체 지각

### 한눈에 보기

양안 단서	단안 단서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시차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임	한쪽 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물체의 상대적 크기, 직선 원근, 결 기울기, 운동 시차 등이 있음
↓	
입체 지각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

1 4문단에서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하고 단안 단서를 활용하는 동물들의 입체 지각에 대해 설명하였다.

2 1문단에서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해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1문단에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상은 유사하지만 시차가 있다고 하였다.

4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단서인데, 물체의 상대적 크기, 직선 원근, 결 기울기, 운동 시차가 있다.

5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므로, 사람이나 동물이 모두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전제할 수 있다.

6 다람쥐는 '관찰자', 여우는 '정지한 물체'에 해당한다. 다람쥐가 움직인 것은 운동 시차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보의 추론

유형 적용하기

본문 114~115쪽

1 ① 2 ②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입체파 2 기존에는 회화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사진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회화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다. 3 눈에 보이는 4 본질 5 이중 시점 적용, 형태의 단순화, 윤곽선 강조

### 추상, 세상을 뒤집다 \_박우찬

해제: 이 글은 사진의 등장으로 대상의 재현(再現)이라는 회화적 전통이 무의미해진 시대의 화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회화의 의미를 찾게 되었는가를 인상주의 화가 모네와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의 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는 빛에 의해 변화하는 대상의 순간적 인상을 표현하고자 그림 전체의 분위기, 빛의 효과 등에 주목하여 색채가 형태를 압도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사실적 묘사에 치중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실적 표현(보이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은 사물의 본질(아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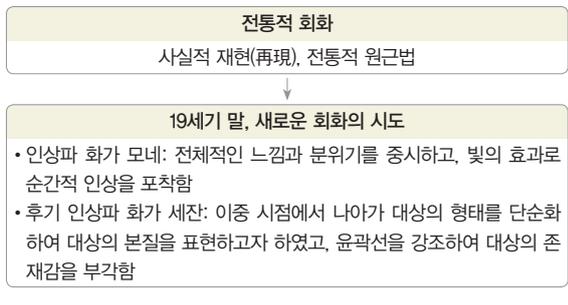
주제: 재현(再現) 위주의 사실적 회화에서 벗어나려 했던 모네와 세잔의 화풍

특징: 19세기 말의 새로운 회화의 경향을 모네와 세잔의 화풍을 통해 설명함

구성

1문단	19세기 말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등장 배경
2문단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표현 의도
3문단	모네의 그림이 지닌 특징과 그에 대한 평가
4문단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의 표현 의도
5문단	세잔의 그림이 지닌 특징
6문단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아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한 세잔

### 한눈에 보기



## 1 특정 부분의 목적 및 이유를 추론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보기>는 입체파 화가들이 대상의 단순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점, 사물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입체파 화가들은 관찰자의 위치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이는 대상의 모습을 한 화폭에 담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5문단에서 세잔은 대상을 전통적 원근법이 아니라 이중 시점을 적용하여 다른 각

도에서 바라보려 하였고, 이를 한 폭의 그림 안에 표현하려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잔은 입체파에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입체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대상을 복잡한 형태로 추상화하여 대상의 전체적인 느낌을 부각하는 방법을 시도한 것은 세잔의 화풍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세잔은 사물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전통적 원근법을 독창적으로 변용한 것이 아니라 사물을 단순화하고, 이중 시점으로 그림을 그렸다.
  - ④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대상의 인상을 그려 내는 화풍을 정립한 것은 세잔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자각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사물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기법을 창안한 사람은 세잔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2 정보 간의 관계를 추론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세잔은 대상을 전통적 원근법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이중 시점을 적용하여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하였다. 그러나 모네가 원근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세잔 이전에 전통적 원근법에 따라 대상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모네와 세잔은 모두 전통적인 회화의 사실적 표현에서 벗어나려 했던, 19세기 말 새로운 화파의 화가들이다.
  - ③ 모네는 빛의 효과에 의한 대상의 순간적 인상에 주목하였고, 세잔은 자각되는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3문단에서 모네는 대상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여 대상을 빠른 속도로 그려 냈기 때문에 그의 그림에서는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았고 색채 효과가 더 부각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세잔은 윤곽선을 강조하여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하였다.
  - ⑤ 세잔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아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생각은 입체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구체적 사례에 적용

유형 적용하기

본문 118~119쪽

1 ③ 2 ②

개념으로 지문 읽기

1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어렵짐작 2 대표성 휴리스틱,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시뮬레이션 휴리스틱 3 신속, 객관적 4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5 시뮬레이션 6 사람이 판단을 할 때 휴리스틱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 사회 심리학 \_한덕용 외

해제: 이 글은 다양한 휴리스틱에 의한 인간의 판단과 추론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특정 사건이 전형적인 사례와 닮은 정도에 따라 추론하는 경향을 말한다.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마음속에 떠올리기 쉬운

정도에 따라 추론하는 경향이다.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은 특정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휴리스틱 때문에 생기는 판단 착오를 설명하면서, 휴리스틱에는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기 싫어하는 인간의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다양한 휴리스틱에 의한 인간의 판단과 추론  
 특징: 휴리스틱의 종류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개념의 이해를 도움

구성

1문단	휴리스틱의 개념과 종류
2문단	대표성 휴리스틱의 개념과 특징
3문단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의 개념과 특징
4문단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의 개념과 특징
5문단	휴리스틱에 대한 평가

한눈에 보기

대표성 휴리스틱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시뮬레이션 휴리스틱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닮은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	당장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 이기 어려움	실제 가능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음
↓		
글쓰기의 평가	휴리스틱은 경험에 기반하여 답을 찾는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종종 판단 착오를 낳기도 함	

1 지문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객관적으로 B일 확률이 A일 확률보다 높을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영미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A보다 B일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영미에 관한 정보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속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판단 착오이다. 즉 ㉠에서 '영미가 은행원보다 여행 블로그 운영자에 더 어울린다고' 판단한 것은 영미의 특징이 여행 블로그 운영자의 전형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① 최근의 사례를 떠올리는 것은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영미가 어떤 사람일지에 관한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  
 ② 영미가 그냥 은행원인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은행원일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므로 대표적인 여행 블로그의 특징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④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여행 블로그를 검색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영미가 어떤 사람일지에 관한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  
 ⑤ 영미가 은행원이 되어 고객들을 대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이 작용한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영미가 B일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은 영미가 은행원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영미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2 지문의 특정 부분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가)의 사례에서는 와인 전문가들에게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라고 말하며 화이트 와인과 가짜 레드 와인을 주고 시음하게

했다. 와인 전문가들은 첫 이미지로 이미 하나는 화이트 와인, 다른 하나는 레드 와인이라고 판단하고 시음했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전형적 특징을 썼다. 따라서 (가)는 '대표성 휴리스틱'에 의한 판단 착오라 할 수 있다. (나)의 사례에서 영희는 '5분만 일찍 도착했다면' 비행기를 탔을 것이라고 자꾸만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더 속상해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에 의한 판단 착오라 할 수 있다.

비판·창의적 독해

개념 적용하기

본문 121쪽

- 1 물아일체 2 편협한 3 ○ 4 ○ 5 ㉠

장자의 물아일체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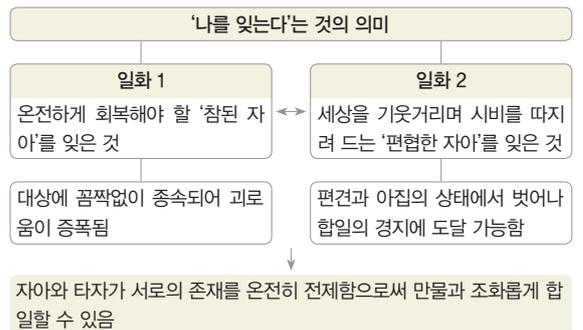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호접몽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두 가지 일화를 통해 장자의 물아일체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호접몽 이야기에는 장자가 나비가 되어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장자」에 나오는 두 가지 일화(참된 자아를 잊으면 안 되며,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어야 한다)를 살펴보아야 한다. 장자는 편협한 자아를 잊음으로써 세계와 합일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타자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장자는 수행을 통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고,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하는 '물아일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호접몽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물아일체의 경지를 나타낸 이야기이다.

- 주제: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특징  
 •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로 화제를 이끌어 내고 결론에서 그 의미를 설명함  
 • 일화에 담긴 개념들을 대조하고 이를 장자의 사상에 연결하여 설명함

구성

1문단	호접몽 이야기의 결론인 물아일체 사상
2문단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①
3문단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②
4문단	두 일화의 '나를 잊는다'는 구절의 의미 차이
5문단	장자의 사상인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

한눈에 보기



1 1문단에 ‘호접몽 이야기는 ~ 물아일체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며 글의 중심 화제를 드러내고 있다.

2 두 번째 일화로 보아 ‘나를 잇는다’는 분별 작용이 사라져 고요한 마음을 이론 상태, 즉 편협한 자아를 잇은 것을 말한다. 편협한 자아를 잇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3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잇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잇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는 명경지수와 같은 텅 빈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5 순자는 인간이 만물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만물의 상호 의존성의 효과를 중시하는 것은 순자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는 만물의 상호 의존성은 장자가 중시한 경지이다.

##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유형

적용하기

본문 124~125쪽

1 ④ 2 ③

개념으로 지문 읽기

- 1 이론-이론, 모의 이론, 두 체계 이론    2 추론    3 ○  
 4 모의실험, 개념적 이론    5 타인의 행위를 이해할 경우 거울 체계가 작동하고, 타인의 신념과 동기를 이해할 때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    6 타인과 정서적으로 일치하고,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는 경우

### 사회적 뇌\_리버먼

해제: 이 글은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통합한 리버먼의 ‘두 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진정한 공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리버먼은 ‘이론-이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심리화 체계’와 ‘모의 이론’에서 모의실험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 체계’를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두 체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순차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경우 무의식적으로는 거울 체계가, 의식적으로는 심리화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또한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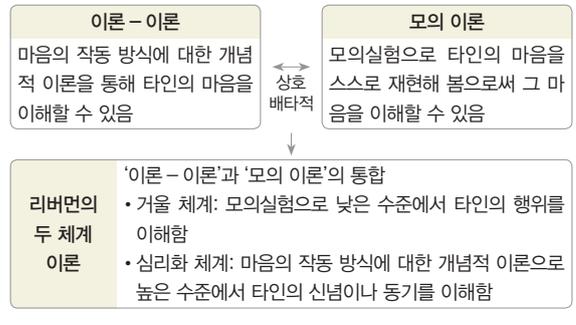
주제: 공감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 소개

특징 •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함  
 • 두 이론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합한 다른 이론을 소개함

구성

1문단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공감의 과정
2문단	리버먼의 ‘두 체계 이론’
3문단	진정한 공감의 완성

한눈에 보기



## 1 지문과 자료를 수용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샐리는 앤이 구슬을 상자로 옮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동이 샐리의 마음에 공감하였다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샐리는 앤이 구슬을 상자로 옮겼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샐리에 공감한 아이들이 샐리가 구슬을 상자에서 찾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샐리가 상자에서 구슬을 찾을 것이라고 답한 아동들은, 구슬의 위치에 대해 아동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샐리 역시 알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② 아동이 타인의 마음을 인과적으로 추론한 것은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가진 것이기에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아동은 샐리가 구슬이 상자로 옮겨진 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③ 30%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바구니에서 구슬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아동들은 구슬의 위치에 대해 자신의 마음과 샐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 것이다.

⑤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가진 아동은 앤에 의해 구슬이 옮겨진 것을 모르는 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2 지문을 수용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마지막 문단에서 리버먼은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 형성되어야 진정한 공감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행동으로 실천이 이루어졌느냐는 진정한 공감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슬픔을 알고 함께 느끼고 도우려는 마음까지 가진 것은 진정한 공감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③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돕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공감을 했더라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타인의 마음 상태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감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타인의 마음과 의도는 알았지만 자신이 공부할 생각이 들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공감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일하게 느꼈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여 타인을 도울 생각을 하지 못했으므로 진정한 공감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타인의 슬픔을 알고 함께 느꼈지만 타인을 도우려 하지 않고 잊으려 하므로 그 감정을 회피하였으므로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없다.

1 ④ 2 ② 3 ⑤

**논균전 \_이의**

해제: 이 글은 권세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백성들은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마저도 없어,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현실의 문제 상황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국가가 영업전을 지정해 주고 영업전의 토지 매매를 제한하여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았다. 토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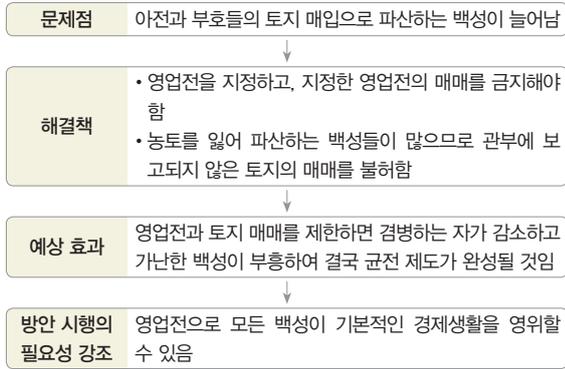
주제: 영업전의 제정을 통한 균전 제도의 완성

- 특징
-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임

구성

1문단	해결책 ① - 영업전을 지정하고 매매를 제한함
2문단	해결책 ② - 관부에 보고되지 않은 토지의 매매를 불허함
3문단	현실의 문제점: 아전과 부호들의 토지 매입으로 백성들이 파산함
4문단	토지 매매 제한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
5문단	영업전 제도 시행의 필요성

**한눈에 보기**



**1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영업전은 국가가 한 집안의 살림을 측정하여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농토로,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다. 이처럼 대대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어 가난한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전의 매매가 촉진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1문단에서 영업전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당나라의 조세 제도처럼 소유와 매매를 모두 허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돈이 있어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토지를 살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전을 둔다고 해도 토지 매매를 허가한다면 부호들이 대토지 소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업전을 나누어 주고 상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땅이 부족할 수도 있다.

③ 글쓴이는 영업전은 매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아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⑤ 글쓴이는 농사를 짓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영업전을 주자고 하였으므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상대적인 혜택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정보 간의 관계 추론**

〈보기〉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덜어 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1문단에서 농토가 많은 사람의 것도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했다. 즉 이 글의 글쓴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업전을 주고 그것을 부호들이 빼앗지 못하게 매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인위적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2문단에서 ‘한 마을’의 예를, 〈보기〉는 ‘영남의 최씨와 호남의 왕씨’의 예를 반례로 제시하여 피해자인 백성들의 삶을 문제 삼고 있다.

③ 이 글은 4문단에서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하면 겸병하는 자도 감소될 것이고, 가난한 백성들이 땅을 파는 일이 없으므로 쉽게 부흥하게 되며, 결국 균전 제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덜어 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태 주어 백성의 재산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방안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예상되는 효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이 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목민관이 백성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여 목민관의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⑤ 〈보기〉는 토지 사유화로 인한 문제 제시 이후 바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이 글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국가가 영업전을 부여하고, 관부에 보고되지 않은 토지의 매매는 금지해야 한다고 하여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A]에는 영업전을 매매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글쓴이는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이나 부호한 상인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농토를 매수하여 농민들이 파산하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부호들로부터 보호하고 그 토지를 토대로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토지를 판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② 영업전 매매 제한에 대한 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실추된 조정의 권위에 대한 언급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글쓴이는 농민들이 파산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을 뿐,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④ 글쓴이는 토지 매매 과정에서 초래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1 ⑤ 2 ① 3 ②

**성장과 분배 \_ 김기원**

해제: 이 글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글쓴이는 먼저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과 분배를 우선시하는 입장인 기존의 주장들을 소개하고, 역사적 사례로 볼 때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성장과 분배가 서로를 촉진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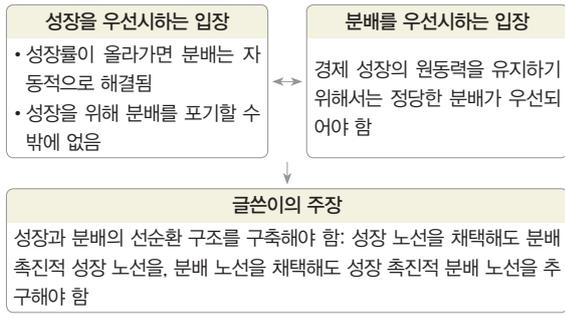
주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특징 • 상반된 기존의 두 입장을 차례로 소개함
- 사례를 들어 기존 입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구성

1문단	성장과 분배의 우위 문제
2문단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
3문단	분배를 우선시하는 입장
4문단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례
5문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

**한눈에 보기**



**1 전개 방식의 특징**

1문단에서는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2문단에서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3문단에서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4문단에서는 이러한 기존 관점에 대해 성장과 분배가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성장이 자동적으로 분배를 보장하지도 않고 분배가 자동적으로 성장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문단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러한 주장의 한계를 지적한 후 글쓴이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답 풀이 ①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과 분배를 우선시하는 입장의 여러 이론을 소개한 것은 맞으나, 어느 한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② 성장과 분배가 충돌하는 원인 그 자체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기존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④ 성장과 분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글쓴이는 성장과 분배 중, 그 어느 쪽만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으며, 둘 다 무시할 수도 없으므로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이다.

- 답 풀이 ② 분배를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③ 1문단에서 성장과 분배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대전제에 해당한다.
- ④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성장-분배 상충론'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 ⑤ 글쓴이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소득의 양극화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지, 소득의 불평등이 해결되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보기>의 누진세 제도와 사회 보장 제도는 소득의 불평등을 막고 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분배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분배 문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은 성장을 위한 소득의 양극화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 답 풀이 ① ㉠은 부자로부터 투자 자금이 나온다고 본다. 따라서 ㉠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가 고소득층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고 볼 것이다.
- ③ ㉡은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정책이 그들에게 소비 지원을 마련해 주어 유효 수요를 늘리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실업 급여가 지급되면 실업자들에게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은 이를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것이다.
- ④ ㉢은 노동자들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누진세 제도는 부의 흐름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은 누진세 제도가 소득의 불평등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 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 ⑤ ㉣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은 상실되고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생길 것이며 나아가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사회 보장 제도는 소득이 적을 때, 또는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이루어지면 사회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1 ① 2 ② 3 ③

**세포의 생과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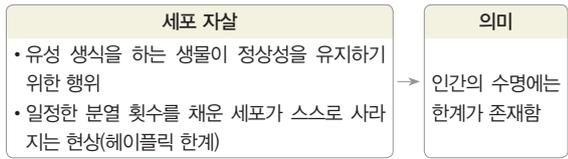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세포의 분열과 관련하여 세포 자살의 원리와 과정, 특징, 이유 등을 밝힌 글이다. 다세포 생물에서는 세포 분열을 할 때, 스스로 자신의 세포 일부를 죽이는 세포 자살을 한다. 이러한 세포 자살은 개체의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다. 또한 세포는 원래의 분열 횟수를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포 분열과 세포 자살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세포 분열과 세포 자살의 원리, 과정, 이유  
 특징 • 특정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과 원인을 자세하게 밝힘  
 • 특정 현상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끌어 냄

구성

1문단	단세포 동물과 다세포 동물의 일반적인 세포 분열
2문단	세포 자살의 개념과 사례
3문단	세포 자살의 과정
4문단	횟수가 제한된 세포 분열
5문단	헤이플릭 한계가 나타나는 이유

**한눈에 보기**



**1 세부 정보 추론**

1문단에서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충분한 먹이와 공간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분열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 시 외부 충격이나 ATP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세포가 죽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2문단에서 이러한 요인과 상관없이 마치 자살이라도 하는 양 세포가 저절로 죽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세포 자살은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답 풀이** ② 4문단에서 '보통의 세포는 무한정으로 분열하지 않고, 자랄 만큼 자란 뒤에 세포 자살에 의해 사라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아무리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세포를 배양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세포가 죽어 버린다고 하여 세포 분열이 정해진 횟수를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질 때마다 잘려 나가는 '텔로미어가 계속 짧아지다가 더 이상 짧아질 수가 없게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세포 분열과 텔로미어의 길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는 대표적인 세포 자살의 예로 태아의 손발을 들어 생명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도 세포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세포 자살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세포 자살은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성 생식을 하는 개체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다.

**2 수용 및 해석의 타당성 평가**

5문단에서 텔로미어는 한 번씩 분열할 때마다 그 길이가 짧아져서 더 이상 짧아질 수 없게 되면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거나 그 길이를 유지할 수 있다면 세포는 계속 분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기>는 이런 텔로미어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를 통해 세포가 지속적으로 분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텔로머라아제'는 세포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텔로머라아제가 암세포 등에서 지속적으로 분열할 수 있다고만 설명되어 있으므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의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③ 텔로머라아제가 헤이플릭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을 뿐, 헤이플릭 한계가 나타나는 원인은 5문단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④ 텔로머라아제와 ATP의 상관관계는 이 글과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텔로머라아제가 ATP 공급에 관여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⑤ 텔로머라아제를 통해 텔로미어를 원상 복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텔로미어의 증식을 막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텔로머라아제를 통해 텔로미어가 원상 복구되면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3 세부 정보 확인**

[A]에 드러난 세포 자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세포 자살 스위치가 발동한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 세포는 ATP를 적극적으로 소모하게 되고 ATP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 결과로 세포가 쪼그라들게 된다. 그다음으로 세포 내의 DNA가 잘게 잘리게 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때 세포를 이루고 있던 내부 물질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재사용된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는 혈액이나 조직 안에서 조직의 분해물 따위를 먹어서 분해하는 식세포의 작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자살 명령', ㉡에는 '세포가 쪼그라들', ㉢에는 '세포의 내부 물질 재사용'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최근 연구에 의해서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는 것은 핵 유전자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로 밝혀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에는 '핵 유전자의 자살 명령'이 들어갈 수 없다.

④ DNA가 잘게 잘리면 세포를 이루고 있던 내부 물질이 여러 경로를 통해 다시 사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잘려진 세포 조각 이동'이 들어갈 수 없다.

⑤ 미토콘드리아는 자살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지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ATP가 소모되면 세포가 쪼그라든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명령 수행'이 들어갈 수 없다.

1 ⑤ 2 ④ 3 ③ 4 ③

**양부일구**

해제: 이 글은 우리나라의 해시계인 양부일구의 특징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양부일구는 다른 나라의 해시계와 달리 반구 형태로 제작되어 시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가 일정하게 표시되도록 하였다는 점, 시간뿐만 아니라 태양의 남중 고도를 반영하여 계절의 변화까지도 읽을 수 있게 제작하였다는 점을 들어 양부일구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주제: 양부일구의 원리와 특징

특징 •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상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밝힘

• 대상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언급하며 우수성을 강조함

구성

1문단	양부일구의 외형상 특징
2문단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양부일구의 원리
3문단	양부일구의 시각선의 특징
4문단	태양의 경로와 양부일구의 절기선
5문단	양부일구의 절기선의 특징

**한눈에 보기**

양부일구		
외형상 특징	원리 ①	원리 ②
반구로 제작되어 태양의 원운동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눈금을 일정하게 그릴 수 있음	시각선을 세로로 그어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바늘의 그림자 위치로 시간을 측정함	절기선을 세로로 그어 태양의 남중 고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의 길이로 날짜를 읽음

↓

세계에서 유일한 반구형이며, 절기선과 시각선을 한 시계에 동시에 나타낸 유일한 해시계임

**1 세부 정보 확인**

3문단에서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한 바퀴인 360도를 하루 24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1시간에 태양은 약 15도를 움직이는 셈이니, 양부일구의 1각에 해당하는 15분 동안 태양은 약 4도를 움직이게 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조선 후기 양부일구에는 96각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조상들이 하루를 12개의 시로 나누어 쓰던 시각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1각은 지금의 15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시각선 한 눈금은 15분임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양부일구를 설치할 때 바늘이 정북쪽을 향하도록 하면 태양 빛이 수직으로 바늘을 지나며 그림자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양부일구는 절기에 따라 태양의 남중 고도가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는 태양의 남중 고도를 관측한 결과 절기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를 반영하여 반구에 절기선을 그었다고 하였다.

**2 구체적 사례에 적용**

5문단에서 '하지 때에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대신 그림자의 길이가 매우 짧다'고 했으므로 맨 아래 선은 하지에 해당한다. 춘분과 추분은 그림자의 길이가 중간 정도이므로 13개 선의

가운데 선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바늘의 그림자가 지난 곳에 새겨진 세로선을 통해 그때의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 그 그림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따라서 반구에서는 세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③ 5문단에서 동지로 갈수록 그림자의 길이는 점점 길어진다고 하였으므로 가로선의 맨 위 선은 동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24절기임에도 절기선을 13개만 표시해 놓은 것은 동지와 하지를 나타내는 선이 위 아래로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봄에서 여름으로 갔다가 다시 겨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의 선에 두 개의 절기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3 세부 정보 추론**

㉠의 이유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다. 평면 해시계는 시간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눈금의 간격을 일정하게 그릴 수가 없지만 판을 오목하게 만들면 태양의 원운동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 눈금의 간격을 일정하게 그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눈금을 일정하게 나타내기 위해 양부일구는 반구 모양으로 제작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평면의 해시계에도 태양의 남중 고도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시된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④ 계절에 따라 태양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반구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이 알았는지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시계를 반구로 나타낸다고 하여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어휘의 의미**

㉠의 '떠서'는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올라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의 '뜨는' 또한 '몸이 공중에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문장에서 '뜨고'는 '수저 따위로 음식을 조금 먹고'를 뜻하므로 ㉠의 의미와 유사하지 않다.

② 제시된 문장에서 '떠서'는 '누룩이나 메주 따위가 발효되어서'를 뜻하므로 ㉠의 의미와 유사하지 않다.

④ 제시된 문장에서 '뜨지'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를 뜻하므로 ㉠의 의미와 유사하지 않다.

⑤ 제시된 문장에서 '뜨고'는 '세상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서 떠나고'를 뜻하므로 ㉠의 의미와 유사하지 않다.

1 ② 2 ⑤ 3 ④

**연극과 공간 \_안치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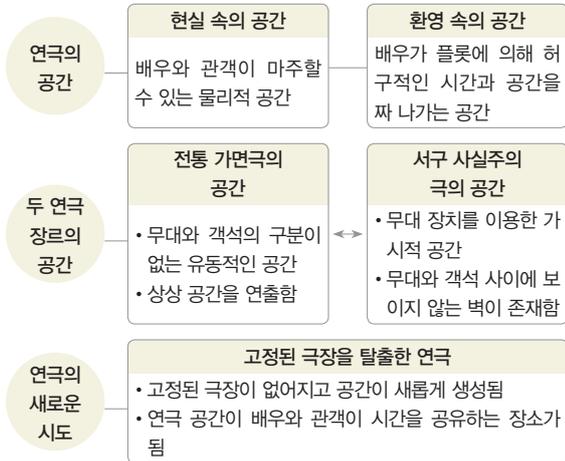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연극의 공간을 물리적인 현실 속의 공간과 극이 창조한 환영 속의 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면극의 공간과 서구 사실주의 극의 공간을 비교하며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사실주의 극의 고정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극장을 탈출하여 관객을 찾아가는 새로운 연극이 가지는 공간의 특징을 덧붙이고 있다.

주제: 연극의 공간과 그 특성

특징: 전통 가면극과 서구 사실주의 극을 대조하며 제시한 구성

1문단	현실 속 공간과 환상 속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 연극의 공간
2문단	물리적 공간이 상상적인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 연극의 공간
3문단	우리나라 가면극의 공간의 특징
4문단	서구 사실주의 연극의 공간의 특징
5문단	배우와 관객이 공유하는 연극 공간을 생성하려는 시도

**한눈에 보기**



**1 세부 정보 추론**

2문단의 마지막 두 문장 ‘행인이 관객이 되어 ~ 다시 태어난다.’, ‘연극이 이루어지는 ~ 깊은 영향을 준다.’를 통해 연극이 창조한 상상적인 공간에 관객이 참여한다면, 이 상상 공간이 현실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어, 배우와 관객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2문단의 ‘하지만 거리라는 물리적 공간은 ~ 깊은 숨이 될 수도 있다.’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 객석을 지켜야 한다.’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배우들이 관객들이 있는 터에 같이 자리를 잡으며 배우와 관객들 사이에 흐르는 시간을 공유한다는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우리나라 가면극은 상상 공간을 연출하고, 서구 사실주의 연극은 가시적인 공간을 만든다고 하였다.

**2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은 연극 공간이 상상적인 공간, 환영 속의 공간으로서 가지는 특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특성이 전통 가면극에는 나타나

는 반면 서구 사실주의 연극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극의 공간이 상상의 공간으로 창조되지 못하는 서구 사실주의 연극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연극 공간의 의미나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이의 효용성 및 가치를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② 서구 사실주의 극이 고정된 공간을 연출하는 한계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연극의 공간, 전통 가면극, 서구 사실주의 연극 등에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전통 가면극의 공간과 서구 사실주의 연극의 공간의 특징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바라보는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3 구체적 사례에 적용**

㉠의 ‘많은 예술가들’은 연극과 관객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기를, 연극이 고정된 극장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즉, 이들은 무대 장치를 이용해 만들어진 고정된 공간이 아닌, 거리나 마당이 무대가 되듯 연극이 창조하는 상상적인 공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의 연극은 고정된 극장에서 벗어나 무대 장치 없이 배우의 행동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조하므로 ㉠이 바라는 연극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일상의 공간을 무대에 꾸였으므로 무대 장치 등을 이용한 고정된 극장을 벗어난 연극이 아니다.

② 야외이긴 하지만 극장이라는 고정된 공간이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연극의 공간을 가시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상상적인 공간이 생성되지 못한 연극이다.

③ 무대 장치가 간소화된 것일 뿐 고정된 극장을 벗어난 연극으로 볼 수 없다.

⑤ 관객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고정된 공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IV 언어와 매체

## 음운

개념 적용하기

본문 138~139쪽

- 1 음운 2 × 3 ㄱ 4 ㉔ 5 ㉔ 6 ㉓ 7 ㉑

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음운의 차이로 말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

2 자음은 목, 입, 혀 따위의 발음 기관에 의해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따위의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이다. 그래서 어느 조음 위치에서 어떤 조음 방식으로 장애를 받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3 <조건>은 순서대로 '고모음, 원순 모음, 전설 모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모음은 'ㄱ'이다.

4 '부엌에'는 [부어케]와 같이 연음하여 발음되며, 바뀐 음운이 없기 때문에 음운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5 ㉔의 경우 대표음이 'ㄹ'은 [ㄹ]이고, 'ㄴ, ㅍ'은 [ㄴ]이다. 따라서 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대표음이 갖지 않은 자음들이다.

오답 풀이 ① 대표음은 [ㄱ]이다.  
②, ③, ⑤의 대표음은 모두 [ㄷ]이다.

6 좋아하다[조:아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ㅎ'이 탈락하는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시원하다[시원하다]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편리하다[펼리하다]는 유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④ 축하다[추카하다]는 거센소리되기의 예에 해당한다.  
⑤ 약속하다[약쑈카다]는 된소리되기와 거센소리되기의 예에 해당한다.

7 'ㄴ'은 'ㄹ'과 만나면 'ㄹ'로 바뀐다. 따라서 '산림'은 [살림]으로 발음해야 한다.

##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

유형 적용하기

본문 142~143쪽

- 1 ㉑ 2 ㉔ 3 ㉒ 4 ㉒

## 1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의 이해

a '밤물'은 '밥'의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으로 비음인 'ㅁ'으로 바뀌어 [밤물]로 발음된다. 'ㅂ'이 'ㅁ'으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식만 바뀌었다.

오답 풀이 b. '신라'는 '신'의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인 'ㄹ'로 바뀌어 [실라]로 발음된다. 'ㄴ'이 'ㄹ'로 바뀔 때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식만 바뀌었다.

c. '굳이'는 '굳'의 'ㄷ'이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센입천장소리인 'ㅈ'으로 바뀌어 [구지]로 발음된다. 'ㄷ'이 'ㅈ'으로 바뀔 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모두 바뀌었다.

## 2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의 적용

㉔ '뽕+느라 → [뽕느라]'는 'ㄴ' 앞의 받침인 파열음 'ㅂ'이 비음 [ㄹ]으로 발음된다. 이는 조음 위치는 입술소리로 동일하나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동화(비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㉑ '듣+고 → [듣꼬]'는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㉒ '놓+고 → [노꼬]'는 'ㅎ'과 'ㄱ'이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ㅋ]으로 발음되는 자음 축약이 일어난다.

③ ㉓ '훤네'는 겹받침 'ㅈ' 중 [ㄹ]만 발음되어 [훤네]가 되고, 다시 'ㄴ'이 앞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훤네]가 된다. 따라서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ㄹ'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㉕ '넙+더라'는 받침 'ㅈ' 중 [ㄹ]만 발음되어 [넙더라]가 되고, 이어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넙떠라]가 된다.

## 3 음운 변동의 유형 분류

'얹날[암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로 둘 다 교체에 해당하며, '여덟[어덜]'은 자음군 단순화로 탈락에 해당한다. '잡혀[자퍼]'는 거센소리되기로 축약에 해당하며, '좁약[좁냐]'은 'ㄴ' 첨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밖[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교체에 해당한다.

③ '같이[가치]'는 구개음화로 교체에 해당한다.

④ '박하[바카]'는 거센소리되기로 축약에 해당하며, '변화[변:화]'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능력[능녁]'은 비음화, '국수[국쑈]'는 된소리되기로 둘 다 교체에 해당한다.

## 4 음운 변동의 유형 적용

㉔는 'ㄴ' 첨가, ㉕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㉓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색연필'은 [생년필]로 발음하며, 'ㄴ' 첨가와 비음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색연필'을 발음하면 ㉔와 ㉓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막일 → [막닐] → [망닐]'은 'ㄴ' 첨가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발농사 → [반농사] → [반농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비음화가 나타난다.

④ '부역문 → [부역문] → [부역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비음화가 나타난다.

⑤ '꽃잎 → [꼇잎] → [꼇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 비음화가 모두 나타난다.

## 단어

### 개념 적용하기

본문 144~145쪽

1 7개 2 × 3 ① 4 ③ 5 ② 6 ②

1 단어는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로, 제시된 문장에서 '그, 는, 물고기, 를, 맨손, 으로, 잡았다'가 개별 단어에 해당한다. 참고로 형태소는 '그, 는, 물, 고기, 를, 맨-, 손, 으로, 잡-, -았-, -다'로 나눌 수 있다.

2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다르게, 마치 동사나 형용사처럼 형태가 변화하면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조사는 기본적으로 불변어에 속하지만,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에 속한다.

3 '좋다'는 대상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형용사에 해당한다. 참고로, '좋아하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4 '씻다'는 '씻고, 씻니, 씻어서' 등과 같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지으니'와 같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의 '시'이 탈락한다.

② '우니'와 같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의 '리'이 탈락한다.

④ '가까워'와 같이 활용을 할 때 '비'이 '누'로 교체된다.

⑤ '길러'와 같이 '르'가 '리로'로 교체된다.

5 '지우개'는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손수건', '놀이터', '배나무', '이슬비'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6 '뛰놀다'는 어간 '뛰-'가 어미 없이 다른 용언의 어간 '놀-'과 직접 결합한 것이다. 이는 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 등과 같이,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 결합 방식에 어긋나게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둘다리'와 같이 '명사+명사'의 구성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다.

③ '줄넘기'는 줄을 넘다와 같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배열 방식인 '목적어+서술어'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④, ⑤ '갈아입다'와 '뛰어넘다'는 '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의 구성으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품사와 단어의 형성

### 유형 적용하기

본문 148~149쪽

1 ③ 2 ③ 3 ④ 4 ③

### 1 품사의 통용 이해

'모두가'에서 '모두'는 뒤에 조사가 결합한 것을 통해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두 쏟았다'에서 '모두'는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한 것을 통해 부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일곱이다'에서 '일곱'은 서술격 조사가 뒤에 붙는 수사이고, '일곱 개'의 '일곱'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② '너 커서'의 '커서'는 '어른이 되다'의 의미가 있고 동사의 활용형을 따르므로 동사이다. 하지만 '가구가 커서'의 '커서'는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는' 상태를 의미하고 동사의 활용형을 따르지 못하므로 형용사이다.

④ '법대로'의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것대로'의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둘 모두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⑤ '모두 같이'의 '같이'는 '갑시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둘 이상의 사람과 사물이 함께'라는 의미가 있다. '얼음장같이'의 '같이'는 명사 뒤에 붙는 조사로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이라는 의미가 있다.

### 2 품사의 구분 적용

'이봐'는 듣는 이를 부를 때 쓰는 말로 감탄사에 해당한다. 독립언은 문장의 다른 성분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진 단어로, 감탄사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며 부름, 대답, 느낌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다섯'은 '사람'을, '다른'은 '일'을, '저'는 '사람'을 각각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② ㉠에서 '자기'는 앞에 나온 대상인 '그'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대명사를 재귀 대명사라고 한다.

④ '합격했다'와 '아냐'는 모두 동사이며, 동사는 청유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합격하자, 알자 / 합격해라, 알이라)

⑤ ㉡에서 용언 '없다'를 수식하는 '전혀'는 주로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낱말과 함께 쓰여 '도무지', '아주', '완전히'의 뜻을 지닌 부사이다. ㉠과 ㉢에는 부사가 쓰이지 않았다.

### 3 단어 형성의 방식 이해

'깨뜨리다'의 기본형은 '깨뜨리다'이며, 어미 '-다'를 뺀 '깨뜨리-'가 어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깨뜨리는'은 어미 '-는'이 어간 '깨뜨리-'와 결합한 것이다. 참고로 '-뜨리다'는 강조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이다.

오답 풀이 ① '아기장수'는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② '맨손'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과 어근 '손'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③ '쌀인'은 어근 '쌀-'과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인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⑤ '모습'은 체언에 속하는 명사 '모습'과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 4 단어 형성의 원리 적용

'검푸르다'는 '검다'와 '푸르다'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검다'의 어간 '검-'이 어미 없이 다른 용언의 어간 '푸르-'와 직접 결합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뒹개'는 어근 '뒹-'과 접미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② '낮설다'는 명사 '낮'과 형용사 '설다'가 결합한 합성어로 '낮이 설다'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④ '군밤'은 '굽다'의 어간 '굽-'과 관형사형 어미 '-니'를 사용하여 명사인 '밤'과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⑤ '벗어나다'는 '벗다'의 어간 '벗-'이 연결 어미 '-어'와 함께 쓰여 다른 용언인 '나다'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개념 적용하기

본문 150~151쪽

1 ○ 2 보어 3 관형어, 주어, 보어, 서술어 4 ③ 5 ④

1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는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인 성분인 주성분에 해당한다.

2 보어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와 함께 쓰여 내용을 보충해 주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3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어, 서술어 '아니다' 앞에 격 조사 '이'가 붙은 말은 보어이다.

4 ③은 '나는 국어를 좋아한다.'와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겹문장에 해당한다. ①의 '늑대와', ②의 '사람과', ④의 '할아버지와', ⑤의 '너와'는 모두 부사어이다.

5 ④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① '키가 크다'는 서술절, ② '너 없이'는 부사절, ③ '빨간'은 관형절, ⑤ '누워서 떡 먹기'는 명사절이다.

##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유형 적용하기

본문 154~155쪽

1 ③ 2 ④ 3 ① 4 ③

### 1 문장 성분의 탐구

'너무'는 부사어지만 서술어 '샀다'가 아니라 관형어 '흰'을 수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눈이 부시게'가 '푸른'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하늘+에서'와 부사 '평평이' '내리고 있다'를 수식하고 있다. ④ ㉠에서 '엄마와'를 삭제하면 문장이 어색해지지만, ㉡에서는 '취미로'를 삭제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⑤ ㉠의 '재로'는 부사어, ㉡의 '재가'는 보어로, 결합하는 격 조사에 따라 문장 성분이 달라지지만 문장 내에서 필수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띤다.

### 2 문장 성분의 분류

'야호'는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쓰인 독립어이다. '우리가'는 문장 전체의 주어, '드디어'는 '통과했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힘든'은 '관문'을 수식하는 관형어, '관문을'은 목적어, '통과했어'는 서술어이다.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는 주성분에, 부사어와 관형어는 부속 성분에, 독립어는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 3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에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가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에는 서술절이 없다. ㉠의 안긴문장인 '내가 빌린'은 체언인 '자전거'를 수식하는 관형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에서 '내가 빌린', ㉡에서 '마을에 사는'은 각각 체언인 '자전거'와 '사람들'을 수식하는 관형절에 해당한다.

③ ㉠의 안긴문장인 '공원이 시작되기'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문장인 '피아노를 잘 치는'과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에는 각각 '잘'과 '누구보다'라는 부사어가 있다.

④ ㉠의 '공원이 시작되기'가 체언인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에 해당한다. ㉡에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 있다.

⑤ ㉢의 '피아노를 잘 치는'에는 주어 '영수가'가 생략되어 있고, ㉡의 '마을에 사는'에는 주어 '사람들이'가 생략되어 있다.

## 4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에는 '그가'라는 주어, ㉡에는 '말도'라는 주어 각각 길고 짧게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나는 그가 내 곁에 머물기를 바랐는데(후자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제시한 상황 설명)와 '얼마 후 그는 말도 없이 떠났다.(화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에는 '나는, 바랐는데'와 '그가, 머물기가' 주술 관계를 이루고, ㉢에는 '그는, 떠났다'와 '말도, 없이'가 주술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④ ㉡은 목적격 조사 '를'과 함께 쓰여 ㉠에서 서술어 '바랐는데'의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은 ㉢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사절이다.

## 문장의 표현

개념 적용하기

본문 156~157쪽

1 ○ 2 객체 3 미래, 현재 4 ③ 5 자기가 나의 집으로 온다고

1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은 '안', 능력 부족에 의한 부정은 '못'을 사용한다.

2 높임의 대상이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경우를 객체 높임이라고 한다.

3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이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4 ③의 '보였다'는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①의 '입혔다', ②의 '굴렀다', ④의 '말렸다', ⑤의 '울렸다'는 모두 사동사에 해당한다.

**5** 직접 인용문의 대명사 '내'는 '자기'로, '너'는 '나'로 달라진다. '가다'는 '나'가 있는 방향을 고려해 '오다'로 고친다.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인용절 뒤에 쓰인 조사 '라고'는 '고'로 고친다.

**알아 두기**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의 변화

- 큰따옴표(" ")가 사라지고, 조사 '라고'가 조사 '고'로 바뀐다.
- 종결 어미가 평서문, 감탄문은 '-다', 의문문은 '-냐', 명령문은 '-(으)라'로 바뀐다.
- 상대 높임 표현과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등이 달라진다.

**문장의 표현**

**유형**

적용하기

본문 160~161쪽

1 ① 2 ③ 3 ① 4 ①

**1** 높임 표현

'아프셔서'는 주체인 '아버지'의 허리를 높이므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고, '뵙고'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다. '왔습니다'에는 상대를 높이는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2** 피동 표현

'돕다'는 피동 접사를 결합하여 피동사를 만들 수 없는 동사이다. '동생이 부모님께 칭찬을 들었다.'는 '들었다'가 '들리었다'와 같이 피동 접사 '-리-'를 결합한 피동사가 존재하지만,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능동문이다. '칭찬이 부모님에 의해 동생에게 들렸다.'는 어색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주다'는 피동사로 만들 수 없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는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잡-+-히-+-었-+-다).'로 파생적 피동문이 가능하다.

② '땀'은 '먹히다'로 피동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뺐었다.'로 '땀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뺐혔다.'라는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④ '만나다'는 피동사로 만들 수 없다. '학생들이 벽화를 멋지게 그렸다.'는 '벽화가 학생들에 의해 멋지게 그려졌다.'라는 통사적 피동문은 되지만 파생적 피동문은 만들 수 없다.

⑤ '누나다'는 '나누다(나누-+-이-+-다)'로 피동사를 만들 수 있다. '누나가 일부러 문을 세게 닫았다.'로 '문이 일부러 누나에게 세게 닫혔다.'라는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3** 문장의 표현

'오래'를 '오시래'로 수정하면 교무실에 가야 하는 '원구'가 높임의 대상이 된다.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래'를 '오라고 하셨어(오라셔).'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를 고려할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떠났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능력이 부족할 때의 부정 표현은 '못' 부정문을 사용한다.
- ④ '읽혀지고'는 '읽-+-히-+-어지고'가 결합된 말로 이중 피동에 해당하므로 '읽히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간접 인용에는 조사 '고'를 사용해야 한다.

**4** 문장의 표현

㉠에서는 주어인 '그녀'가 아니라, '그녀는 학교에서 되었다'에서 보어가 빠졌기 때문에 '회장이'라는 보어를 추가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그'가 '나'와 '뉘시' 중에 '뉘시'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그'가 '나'가 '뉘시'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뉘시'를 좋아하는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뉘시'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가 더 '뉘시'를 좋아한다'로 의미가 분명하도록 고친 것이다.

③ 주어인 '특징은'과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도록 문장을 고친 것이다.

④ 환경은 '개선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주동 표현으로 고친 것이다.

⑤ '조용히'와 '조용하고'의 어휘적 유사성을 뜻하는 '정숙'이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조용히'를 삭제한 것이다.

**국어의 규범**

**개념** 적용하기

본문 162~163쪽

1 어법 2 나는 형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3 ③  
4 ① 5 ③

**1**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은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가 지닌 뜻을 파악하기 쉽게 형태소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뜻이다.

**2**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쓰되,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문장에서 '대로'와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밖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3** 한자어의 합성어에는 여섯 단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따라서 ③의 '초점'은 [초점]으로 소리 나더라도 '초점'이라고 적어야 한다.

**4** 국어에서 두음 법칙은 일부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룰'과 '렬'은 이러한 두음 법칙의 예외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쓰일 때 모음이거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룰, 렬'은 '울, 열'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는 '룰, 렬'로 적고 'ㄴ' 받침이나 모음 뒤에서는 '울, 열'로 적는다. 따라서 '확률'이 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②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야 하지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씩둑'으로 적어야 한다.

③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따라서 '제삿날'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드러나다'와 '쓰러지다'는 본뜻에서 멀어진 것에 해당한다.

**5**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③은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라고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⑤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므로, '꺼져 간다.'와 '아는 척한다.'는 띄어 써야 한다.

②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것'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나이를 세는 단위 명사인 '살'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한글 맞춤법

유형  
유 적용하기

적용하기

본문 166~167쪽

1 ③ 2 ③ 3 ① 4 ③

###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너머[너머]'는 어원상 '넘-+-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지만, 현재는 어원에서 멀어져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ㄱ의 '거러'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②, ④, ⑤ ㄱ의 '좁히다'와 ㄴ의 '넘어', ㄷ의 '읽-'은 모두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쓴 것이다. 이러한 표기 방식을 사용하면 뜻을 파악하기 쉽고 독서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 2 한글 맞춤법 규정

[씹씹]은 ㉠의 내용 중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씹씹'이 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해씩]으로 소리 나는 말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해씩'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② [듬뿍]으로 소리 나는 말은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듬뿍'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④ [깉뚜기]로 소리 나는 말은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깉뚜기'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⑤ [소쩍새]로 소리 나는 말은 'ㅍ'은 두 모음 'ㅛ'와 'ㅜ' 사이에 나는 된소리이고, 'ㅍ'은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지만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ㅍ'은 된소리로 적지만, 'ㅍ'은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되기에 '소쩍새'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 3 한글 맞춤법 규정

㉠ [아니요]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말이고, 문장의 끝에 놓였기 때문에 [아니요]로 소리가 나더라도 종결형 어미 '-오'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 적용을 받아 '아니오'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 [가지요]의 '요'는 종결 어미 '-지' 뒤에 덧붙은 보조사이다. '요'가 보조사임은 이를 뺀 '영화 구경 가지.'가 성립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의 표기를 규정한 것은 ㉡이다.

㉢ [설탕이요]의 '요'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이며, '이-'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이다. ㉢의 설명을 볼 때 '이요'로 적어야 한다.

### 4 띄어쓰기 원칙

㉠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의 '지'는 어미 '-는지'의 일부분이며 용언의 어간과 합쳐 쓴 것이다.

## 국어의 역사

개념 적용하기

본문 168~169쪽

1 방점 2 ○ 3 가 4 ㅍ(왕), 부터 5 고 6 ③

**1** 중세 국어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성조는 방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평성은 낮은 소리로 점을 찍지 않았고, 거성은 높은 소리로 점을 하나 찍었으며, 상성은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로 점을 두 개 찍었다.

**2** 이어 적기란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에 적는 것으로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방식이다. 이는 중세 국어의 일반적인 표기 방식이었으며 연철 표기라고도 한다.

**3**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 ㅣ'가 쓰이거나 생략(○)되었다.

**4** 객체인 '부터'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술-'이 쓰였으며, 상대(청자)인 '왕'을 높이는 어미 '-쇼셔'가 사용되었다.

**5** (1), (2) 모두 '엇테', '므스'와 같은 의문사가 쓰인 설명 의문문이고, 앞 음절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 '고'가 적절하다.

**6**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형태나 뜻이 바뀔 수 있다는 특성은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한다.

## 중세 국어의 특징

유형 적용하기

적용하기

본문 172~173쪽

1 ⑤ 2 ① 3 ⑤ 4 ②

### 1 중세 국어의 특징

㉞의 '바르매(바름+애)'에 사용된 조사 '애'는 '바름'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㉞의 '바라래(바람+애)'에 사용된 조사 '애'는 '바람'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㉞과 ㉞의 조사 '애'가 모두 앞의 체언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구뎡이'의 조사 '이'는 현대 국어의 조사 '와/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뎡(교성)'이 비교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② '불휘'는 '불휘+ㄹ'로 분석되고, 현대어 풀이로 '뿌리가'이므로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현대 국어의 '가'에 해당하는 주격 조사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남근'의 형태소 분석을 보면 조사 '은'과 결합할 때 '기'이 덧붙고 있으므로,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조사와 결합할 때 '기'이 덧붙는 체언이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남근'의 조사 '은'과 '므른(을+은)'의 조사 '은'은 모두 현대 국어의 조사 '은'에 해당하며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달리 표기되는 이형태이다. 따라서 두 조사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자격을 나타낸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알아 두기

##### 중세 국어의 처소 부사격 조사

중세 국어의 처소격 조사는 앞에 붙는 체언의 끝음절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 'ㅣ' 모음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사용되었다.

	환경 조건	예
애	양성 모음 뒤	바라래 가느니(바다에 가니)
에	음성 모음 뒤	굴허에(구렁에)
예	'ㅣ' 모음 뒤	비에(배에)

### 2 중세 국어의 특징

두음 법칙이란 'ㄹ'과 'ㄴ'이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말한다. '넙디(입지)'와 '너르메(여름에)'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후루(하루)'와 '누물(나물)'만 보면 이후에 첫째 음절의 'ㄹ'은 'ㄴ', 둘째 음절의 'ㄹ'은 'ㄱ'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후루(하루)'와 '소곰(소금)'을 통해 한 단어 안에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함께 쓰인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발(쌀)'과 '호부르베(흙으로써)'에서 어두에 쓰인 'ㅃ'이 이후에 된소리 'ㅍ'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⑤ 목적격 조사 '을'과 '을'은 체언의 모음에 따라 양성 모음인 경우 '을'을, 음성 모음인 경우 '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중세 국어의 특징

'문중고'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줍-'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였다. 현대 국어에서처럼 '여쭙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효도흙'은 '효도흙--+옴'으로 분석되어, 현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 '-(으)ㅁ'과 다른 형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쁘디'의 'ㅃ'은 어두 자음군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 '聖孫(성손)을'에서 '을'은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과는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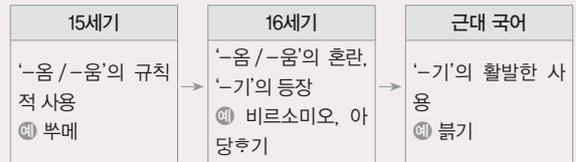
④ '내시니이다'는 문장의 주체인 '하늘'을 높이고자 현대 국어와 동일하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 4 중세 국어의 특징

'나라'는 무정 명사이기 때문에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 상관없이 관형격 조사 '시'이 결합한다. '사름'은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한다.

#### 알아 두기

##### 명사형 어미의 변화



## 매체

### 개념 적용하기

본문 174~175쪽

1 ① 2 × 3 ㉠ 표현, 심미 ㉡ 관점, 비판 4 ④ 5 ①

1 매체들은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의 측면, 정보의 양과 질, 정보의 제공 속도와 보존 방법, 정보 제공자 범위의 폐쇄성과 개방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 및 소통 방식이 달라진다.

2 텔레비전은 다수의 대중에게 같은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나, 책은 정보 제공의 속도가 다른 매체에 비해 느린 편이다.

3 매체 언어의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알고 매체 자료가 지닌 심미적 가치를 향유할 때 매체 언어에 대한 시각을 확장할 수 있다.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4 <보기>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인터넷 매체는 누구든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어 의사소통한 내용의 확산 및 재생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파급력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 시 신중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5 적절한 매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아닌 수용자의 수가 다수인지 소수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실전 01 언어** 본문 176~179쪽

1 ③   2 ④   3 ⑤   4 ④   5 ②   6 ⑤

### 1 표준어 규정

<보기 1>에 따르면, '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는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에]로 발음할 수 있다. 또한, '의의'는 [의의], [의이]로 발음할 수 있다. '의의'의 첫음절을 [이]로 발음하여 [이이]로 발음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다만 4'에 따라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의의'는 [의의]로 발음한다.  
 ② '다만 4'에 따라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고, '의의'의 둘째 음절은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④ '다만 4'에 따라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을 허용하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이]로 발음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며, '다만 4'에 따라 '의의'의 둘째 음절을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⑤ '제5항'에 따라 조사 '의'는 [의로], '의의'는 [의의]로 발음하며, '다만 4'에 따라 '민주주의'는 [민주주이]로 발음할 수 있다.

### 2 단어의 형성

'높다랗다'는 형용사 '높다'의 어간 '높-' 뒤에 '그 정도가 꽤 뚜렷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다랗다'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이 경우 접미사의 결합으로 본래의 품사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형용사이다. '높다랗게' 또한 '높다랗다'의 어간인 '높다랗-'에 어미인 '-게'가 붙어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서 기능하지만, 품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① '헛말'은 '말'이라는 명사 앞에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헛-'이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② '벌이'는 '벌다'라는 동사의 어간인 '벌-'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이'가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 ③ '자랑스럽다'는 '자랑'이라는 명사에,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스럽다'가 붙은 파생어이다. 따라서 파생어의 결합으로 명사를 형용사로 바꾼 경우로, 품사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⑤ '낮추었다'는 '낮다'라는 형용사의 어간 '낮-'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추-'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이때 '낮추다'는 품사가 바뀌어 형용사가 동사가 된다.

### 3 로마자 표기법

<보기 1>에 나타난 국어의 이중 모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정에 따라 '웨'는 'ye', '와'는 'wa'로 적으므로 '예화'는 'Yehwa'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키'는 'yeo', '니'는 'ui'(붙임 1에 의거)로 적으므로 '여의도'는 'Yeouido'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단모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정에 따라 'ㅡ'는 'eu'이므로 '영등포'는 'Yeongdeungpo'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로마자 표기법을 지켜 ㉠~㉣에 들어갈 표기들로만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⑤이다.

### 4 담화의 이해

'군말'은 담화에서 '아, 저, 음, 뭐'와 같이 의미 전달과 상관없이 발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며, '어색함, 곤란함, 머뭇거리'와 같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보기>에서는 이러한 군말을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참 훌륭하시네요.'는 칭찬의 내용으로 진솔하지만 질책의 의도를 갖는 반어적 발화이며,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발화이다.  
 ② '여기, 그거' 등은 지시 표현, '그러지'는 '한 시간 동안 줄을 서서 사 온 빵'이어서인지를, '그 말'은 '네가 천사라는 소문'을 대신 표현하는 대용 표현으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③ '네가 천사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다한데, 만약 돈을 빌려주면 그 말이 세계로 퍼질 거야.'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사실 여부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표현으로 설득을 위한 과장된 발화이다.  
 ⑤ '밥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는 밥을 같이 먹자는 요청을, '말겨 돈 돈 있어?'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절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발화이다.

**알아 두기**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

- **지시 표현:** 상황 맥락이나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생각, 앞선 발화에서 해당되는 사람, 사물을 대신 가리키는 표현으로 맥락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예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 **대용 표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지시어나 간단한 단어, 구절로 대신하는 표현  
 예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은 감기 예방의 효과가 있다.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다.

### 5 문장의 표현

㉠의 '주셨다'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인 표현이다. ㉡의 '모시러'는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데리러'의 높임말이며, 객체(할아버지)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이다. 즉 ㉠은 '-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으나, ㉡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높임 대상인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를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고, ㉡에서는 '할머니'와 관련된 사물인 '귀걸이'를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③ ㉠의 '말씀'은 화자 자신의 말을 낮춘 표현인 반면, ㉡의 '말씀'은 '선생님'의 말을 높이는 표현이다.
- ④ ㉠에서는 '진지', '잡수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고, ㉡에서는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객체를 높이고 있다.
- ⑤ ㉠의 '가십시오'는 하십시오체로 청자를 높이고 있다. 하십시오체는 격식체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나 공적인 상황에 사용되며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다. ㉡의 '가'는 해체로 청자를 낮추고 있다. 해체는 비격식체로 일상적 상황에 사용되며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 6 중세 국어의 특징

㉡의 '하다'는 중세 국어에서 ' 많다'라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서 '사람, 동물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한 예이다. 의미의 확대는 단어가 지시하는 범위가 원래보다 넓어진 것을 말한다.

- 오답 풀이** ① ㉠의 '말씀'은 중세 국어에서 '말' 자체를 의미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이고, ㉡의 '놈'은 중세 국어에서 '사람'을 의미했는데 현대 국어에서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둘 다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다.
- ② ㉠, ㉡은 각각 '말씀+이', '놈+이'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고, 이는 현대 국어에서도 '이'로 사용되고 있다. ㉢은 '바+ㅣ'로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된 것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가'로 바뀌었다.
- ③ ㉠의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를 의미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를 의미하고, ㉡의 '어엿다'는 중세 국어에서 '가엿다'를 의미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다'를 의미하므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 ④ ㉢의 '뜨들'은 '뜨을'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이어 적기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뜻'처럼 끊어 적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 실전 02 매체

본문 180~185쪽

1 ⑤ 2 ⑤ 3 ④ 4 ① 5 ④ 6 ③ 7 ⑤

### 1 매체의 특성에 따른 정보의 구성

㉠에서는 자신이 발견한 이론을 사람들에게 심도 있게 설명하고자 하므로 문자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반면 ㉡에서는 사진과 영상이라는 비문자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므로 정보 제공 시 활용하고자 하는 언어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과 ㉣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모두 신속히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정보 제공의 속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보기 1>의 '책은 ~ 어떤 소재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이론을 심

도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에서는 책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 1>의 '인터넷은 ~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을 실재감 있게 보여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학생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여 주며 수학 여행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③ <보기 1>의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는 많은 대중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국민들에게 태풍 부상 소식을 긴급히 전달하고자 하는 ㉢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보기 1>의 '휴대 전화 또한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빠르나 한정된 대상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반 친구들에게 내일 과학 시간 준비물을 안내하고자 하는 ㉣에서는 휴대 전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알아 두기

##### 정보 제공자 범위의 폐쇄성과 개방성

매체 중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있는 반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개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경우 특정 정보 제공자가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의 경우 누구든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매체의 비판적 수용

글쓴이는 미세 먼지 문제가 반복·지속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각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에도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을 것을 우려하는 네티즌의 의견을 기사의 표제로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① <보기 2>에서 글쓴이는 '미세 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 1>의 글쓴이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글에서 강조하거나 부각하는 정보는 무엇'인지를 따져 가며 읽어야 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이는 미세 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기 2>를 비판적으로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보기 2>에서 글쓴이는 미세 먼지로 인해 희뿌옇게 보이는 건물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 1>의 '문자로 표현된 것뿐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 도표, 글의 요소들이 배치된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미를 따져 읽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이는 미세 먼지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해 미세 먼지로 인해 희뿌옇게 보이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기 2>를 비판적으로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다.

③ <보기 2>에서 글쓴이는 미세 먼지 농도와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 1>의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 누락된 정보나 관점은 무엇인가' 등을 따져 가며 읽어야 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이는 미세 먼지 농도와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만 제시했을 뿐 미세 먼지 문제의 원인이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므로 <보기 2>를 비판적으로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보기 2>에서 글쓴이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11월 17일자 미세 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기 1>의 '비판적 읽기란 ~ 글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등을 따져 가며 읽는 것을 뜻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이는 전문 연구 기관의 발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기 2>를 비판적으로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다.

### 3 매체 수용의 관점

(가)에서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비판적 수용이란, 매체 자료의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익 광고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A가 올바른 수용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A는 공익 광고에서 제안한 중간 소음의 해결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매체 자료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B는 공익 광고가 사회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중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공익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B는 매체 자료는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C는 공익 광고의 문구가 함축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며 공익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매체 자료의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A~C는 동일한 공익 광고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A~C가 동일한 매체 자료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 4 매체 자료의 활용

발표자는 ㉠과 ㉡을 통해 동일한 의상에 대해서도 관점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감상이 나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을 통해 동일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면에 대해 관점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감상이 나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은 모두 동일한 대상을 수용하더라도 관점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감상이 나올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 속의 의상은 디자이너가 생산한 대상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권위 있는 전문가가 생산한 대상일지라도 미흡하거나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③, ④ ㉡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관점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감상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 이를 통해 대상을 수용할 때 단일한 관점이나 가치를 고집하는 태도를 비판하거나 현대 사회에서 매체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관점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감상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 이를 통해 매체 자료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 5 매체 수용에 대한 이해

1문단에서 현대 사회에서 매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매체가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기능은 물론 문화 형성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매체가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현대 사회에서 매체는 ~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체 자료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태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지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② (가)의 '매체 자료 역시 관점과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매체가 지닌 가치 중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매체 자료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수용자가 폭력적 장면을 텔레비전 드라마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보느냐,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참고할 때, 매체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매체 자료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⑤ (가)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매체 자료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며 매체 자료를 수용하면 매체 자료가 지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6 매체 자료의 생산

(다)에서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수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난이도를 조정하여 표현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용자의 성별을 고려할 경우에는 편협하거나 차별적인 내용은 없는지, 전달 방식은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은 생산자와 연계를 맺고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수용자는 이에 대한 반응을 게시하여 생산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누리 소통망(SNS)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기술의 발달로 매체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에서 매체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매체 자료의 생산자의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라)의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들은 파급력이 큰 만큼, 특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라)의 '매체마다 언어적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서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수용자와 소통하려는 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매체 자료를 생산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7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료 생산

학생 A가 UCC 동영상의 내용을 청소년이 주로 쓰는 일회용품 위주로 구성한 것은 매체 자료의 수용자의 연령과 관심사를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 것은 소통 목적을 고려한 것이므로 ㉠의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광고 회사는 음성 언어만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자를 씹을 때 나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삽입하여 제품의 식감을 강조하였으므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한 사례이다.

② 신문사의 기사는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파급력이 큰 신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사에 특정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으므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한 사례이다.

③ 영화감독은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영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면의 내용에 따라 다른 색감을 사용하였으므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한 사례이다.

④ 홈쇼핑 방송의 진행자는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기가 바닥의 먼지를 흡입하는 장면과 함께 소음의 정도까지 전달하였으므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한 사례이다.

# V 화법과 작문

## 화법

### 개념 적용하기

본문 188~189쪽

- 1 맥락 2 × 3 ○ 4 ⑤ 5 ㄱ, ㄷ

- 1 화법에서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
- 2 언어가 아닌 몸짓, 표정, 시선 등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 3 설명 과정에서 설명할 대상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자료를 제시하면서 관련된 언어적 설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청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4 발표를 할 때는 청중의 반응에 따라 내용을 조절하면서 발표를 해야 한다.
- 5 대화를 할 때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해야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ㄱ).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ㄷ),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해야 한다(ㄴ). 또한 모호하거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ㄴ)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 듣기·말하기 전략

#### 유형 적용하기

본문 192~193쪽

- 1 ⑤ 2 ④

#### 개념으로 지문 읽기

- 1 발표 장소는 교실이고, 예상 청중은 반 친구들이다.
- 2 공동체
- 3 청중에게 질문하기, 사진 자료 활용, 화제의 의미 제시, 필 벽의 일화 제시, 시 인용 등
- 4 '까치밥' 사진, 필 벽이 경주를 방문한 사진
- 5 발표자의 주장과 그 근거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며 들었다.

### 1 말하기 계획

발표자는 현대에 와서 '까치밥' 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까치밥' 문화의 의미를 되살리자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의 개인적 경험을 제시한 부분은 이 발표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5문단에서 발표자는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는 요즘, 까치밥 문화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배려의 의미를 되살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까치밥'의 사진을 보여 주며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감이 대표적 '까치밥'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2문단에서 까치가 길조라는 선조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까치밥'이 나타나게 된 유래를 제시하고 있다.

### 2 말하기 계획

발표자는 처음에 발표 화제를 사진으로 보여 주며 '까치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발표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필 벽의 일화를 소개하여 외국인에게도 '까치밥' 문화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까치밥'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③ 1문단에서 '까치밥'의 사진을 보여 주며 발표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1문단에서 '까치밥'에 대해 알려 주기 위해 '화면의 중심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작문

### 개념 적용하기

본문 194~195쪽

- 1 × 2 ⑤ 3 ④ 4 ㄴ, ㄷ

- 1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때에는 글을 쓰는 사람의 기대나 배경지식을 고려할 게 아니라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의 기대나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 설득적 전략은 설득을 위한 작문에 필요한 요소이다.
- 3 설득을 위한 작문에서는 문제에 대한 글쓴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
- 4 자기표현을 위한 작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며 그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기르게 한다(ㄱ). 또한 자기소개서는 진학이나 취업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쓰는 경우가 많으며(ㄷ), 관습적인 표현의 사용보다는 창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ㄴ).

### 고쳐쓰기

#### 유형 적용하기

본문 198~199쪽

- 1 ⑤ 2 ⑤

#### 개념으로 지문 읽기

- 1 교지 편집부의 요청에 의해 전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다룬 글을 씀
- 2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용하고자 한 것
- 3 수치, 이점, 실제 사례

## 1 고쳐쓰기

㉔의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를 뜻하고, '벌리다'는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를 뜻한다. 문맥상 '벌이다'가 적절하므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 오답 풀이** ① ㉔은 문맥상 뒤에 오는 체언 '필요성'을 수식하는 말이므로, 부사격 조사 '에'가 붙는 것이 아니라 관형격 조사 '의'가 붙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㉔은 우리 학교 점심시간이 다른 학교 시간에 비해 짧다는 내용으로, 이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어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㉔에는 학생들이 버리는 대상이 나와야 하므로, '음식물'이라는 목적어를 첨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㉔은 '함께 동참하는'에서 '동참(同參)'은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이므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함께'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2 고쳐쓰기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관형어 '줄이는'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 오답 풀이** ①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는 것은 글 전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고쳐쓰기 계획이고, 전반의 양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적절하다.  
② 첫째 문단에서 '그리고 ~ 짧다'는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문단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고쳐쓰기 계획이다.  
③ 필요한 문장 성분을 추가하는 것은 문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고쳐쓰기 계획이고, 둘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 목적어를 첨가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④ 잘못된 조사를 고쳐 쓰는 것은 단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고쳐쓰기 계획이고, '줄이기'를 관형어로 만드는 조사가 와야 하므로 '에'를 '의'로 고쳐야 한다.

### 실전 01 화법과 작문

본문 200~203쪽

1 ⑤ 2 ④ 3 ⑤ 4 ⑤ 5 ④

## 1 듣기·말하기 전략

㉔에서는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며 완곡한 표현을 통해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단호한 거절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오늘 모인 목적과 할 일을 제시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다.  
② 정훈이는 은영이의 제안에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며 통명스럽게 반응하여 의사소통에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③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④ 바로 앞에 나온 진희의 말에 담긴 의도를 재정리하여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 2 담화 내용 생성

<보기>에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수용하므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 개념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영이는 자신의 말하기 방식에 불안을 느끼며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④와 같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해야 한다.

① ② 발표에 자신감이 없는 은영이에게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하려면 말하기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말이나 스스로의 모습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만한 말이 필요하다. 그러나 ①과 ②에는 현재 은영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가 노력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만 있다.  
③ 과거 은영이의 발표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고 있다.  
⑤ 은영이가 발표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긍정적 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과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② 발표에 자신감이 없는 은영이에게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하려면 말하기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말이나 스스로의 모습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만한 말이 필요하다. 그러나 ①과 ②에는 현재 은영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가 노력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만 있다.  
③ 과거 은영이의 발표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고 있다.  
⑤ 은영이가 발표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긍정적 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과 거리가 멀다.

## 3 말하기 계획

정훈이의 제안으로 영양사 선생님과 인터뷰할 때에는 선생님께 아침 식사의 장점과 아침 식사로 어떤 음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여쭙보기로 하였다. 아침 식사 여부와 급식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학생들이 대화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발표 내용과도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대화를 통해 조별 수행 평가 발표 주제를 '아침을 먹는 습관'으로 정했다.  
② 아침 식사의 장점과 아침 식사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보 전달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③ 진희의 말에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실태를 강조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은영이의 말에서 아침 식사를 해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한 신문 기사를 활용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 자료 활용 방안

㉔는 전체 노인의 수와 독거노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㉕는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이다. 따라서 ㉔와 ㉕를 활용하여 ⑤와 같은 자료 활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㉔의 자료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지는 알 수 없다.  
② 독거노인이 고민하는 문제 중 질병 문제는 17%인 반면에, 경제적 문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27%이다.  
③ ㉕는 독거노인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용하자는 것이지,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독거노인들끼리 서로 연계하자는 내용의 자료는 아니다.  
④ 독거노인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문제가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 문제가 커진다고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5 고쳐쓰기

'그리고'의 앞 문장은 과거 사회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고, 뒤 문장은 과거와 달라진 현재 사회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역접 관계에 있으므로 '그리고'는 '그러나'로 수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개론'은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함'을 의미한다. 독거노인의 문제를 제기하는 문장의 문맥상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 의함'을 의미하는 '거론'이 적절하다.
- ② 독거노인이 경제적인 빈곤에 처한다는 내용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뒤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이 문단은 독거노인이 직면한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다. 독거노인이 나타나 는 양상이 서양과 동양이 같지 않다는 진술은 이 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 ⑤ '떠맡기다'는 사동사로, 이 서술어에 동반되는 필수 문장 성분인 목적어 '독거노인 문제들'이 생략되어 있다.

**실전 02** **화법과 작문** 본문 204~208쪽

1 ②   2 ②   3 ④   4 ③   5 ④   6 ③   7 ④

**1** **듣기·말하기 전략**

- 강연 내용에서 정보의 출처를 언급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의 대답에 반응하고 있다.
- ③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슨 사진일까요?", "이것은 무 엇을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등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사진,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며 강연을 하고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에서 '강강술래, 태권, 김장'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배려하는 우리 문화를 지키자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자료와 매체 활용**

-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공동체의 유대감을 보여 주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강연이다. 동영상을 보여 준 후, 강 강술래가 손을 잡고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은 강강술래가 여럿이 함께하는 놀이라는 것을 보여 주 기 위해 제시한 자료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강강술래를 하는 방법은 이 강연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 ③ ㉠은 태권을 하는 장면에 대한 동영상으로 지역 분포와는 상관없다.
- ④ ㉠은 태권을 잘 알지 못하는 청중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활용한 것이 지, 청중의 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
- ⑤ 김장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변화는 이 강연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3** **담화의 수용 및 평가**

- 청자 1은 인류 무형 문화유산의 다른 것들도 많이 알고 싶다고 하였고, 청자 3은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뜻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청자 1과 청자 3은 모두 강연에 보 충했으면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청자 1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강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다른 것들도 더 알고 싶어 하고 있다.
- ② 청자 2는 강연자가 우리 문화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 ③ 청자 3은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용어에 대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청자 2와 청자 3은 새롭게 안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경험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토의 준비**

- '오늘은 '조별 과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의 하려고 해.'에서 ㉠을 확인할 수 있고, '정리하면, 조별 과제 평 가가 ~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네.'와 '정리하면, 문제점은 분명 히 존재하지만 ~ 안 된다는 거네.'에서 ㉡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조별 과제 평가는 문제점만 있을까?'에서 ㉢를 확인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경수는 '지금부터 토의해 보자.'라고만 말했다는 뿐, 어떠한 발언 순 서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리하면'이라고 하여 토의 참가자들의 발언을 정리했을 뿐, 의견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5** **듣기·말하기 전략**

- 정호는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율이라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조별 과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 다. 이에 수영은 '맞아'라고 하여 정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조별 과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과거의 수업 방 식으로 후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수영은 정호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을 뿐 정호의 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지 않았다.
- ③ 수영은 정호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수영은 조별 과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정호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6** **글쓰기 계획**

- (가)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조원들이 책임감이 없으면 조별 과제 평가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조별 과제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 외에는 공부를 소홀히 하기 쉬워 모르는 내용이 많아질 수 있다 는 내용이다. 그런데 (나)의 3문단에는 두 사람의 의견 중 일치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서술되어 있다.
- 오답 풀이** ①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조별 과제 평가에 불만을 드러내는 글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여러 명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장점을 발현해 볼 수도 있다.'는 토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 ④ "조율은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 율이라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조별 과제 평가 방식은 반드시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따라서 조별 과제 평가를 무조건 폐지하기보다 조별 과제가 지닌 문제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자료 활용 방안**

- ㉠은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기 어렵다는 조별 과제의 문제점 을 지적한 내용이다. 그런데 ㉡는 특별한 대책 없이 이전과 마 찬가지로 조별로 과제를 부과하여 개인이 맡은 과제에 대한 책 임감을 갖도록 하자는 내용이므로 의미상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5문단의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구 체화할 수 있다.
- ② 5문단의 '능동적인 학습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다.
- ③ 4문단의 '조별 과제는 조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를 구체화할 수 있다.
- ⑤ 3문단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조별 점수에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생 기는 점도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